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2.03+04

통권 **제110호** (비매품)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2년 3월 5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代) **FAX** 02-2203-1974
디자인 하나로애드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CoverStory 송희연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초대대표

동북아 글로벌 교육의 허브
동서 지식 · 문화교류의 장으로 성장할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머릿글 강창희 미래에셋 부회장
3 · 4월 프로그램
Issue&Seminar
– **채명신**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총재
– 창립 37주년 기념포럼 / **문창극** 중앙일보 대기자
세상을 보는 눈
TPT 멘토대학
위(We)대한 토크
최윤규의 카투노믹스
休&Health
회원&연구원 소식
Welcom to KHDI
발행인편지
아카데미뉴스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2012 CEO 미디어 스피치
정보비타민
Special Focus
명사초청특강
이인식칼럼

표지인물 **송희연**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초대대표 | 사진 **오경근** 원장

말산업을 선도하는 일류공기업
KRA 한국마사회

www.kra.co.kr

5,000만 馬力의 성장동력!

이제, 말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힘이 됩니다.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희망의 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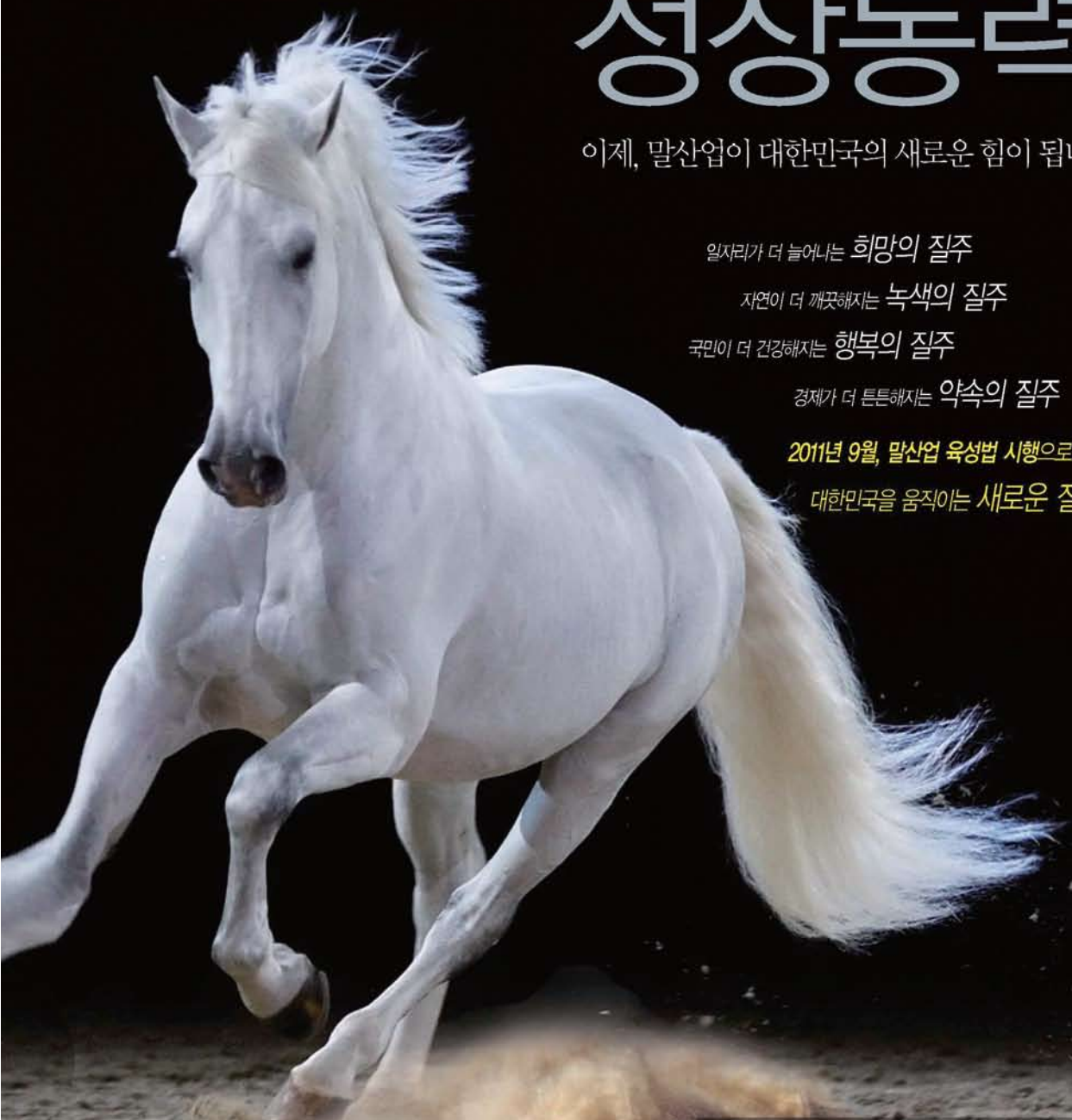
자연이 더 깨끗해지는 **녹색의 질주**

국민이 더 건강해지는 **행복의 질주**

경제가 더 튼튼해지는 **약속의 질주**

2011년 9월, 말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새로운 질주**가 시작됩니다



말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말산업은 말의 생산 · 육성 · 유통 · 이용 등 말과 관련된 국가 육성 사업으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신성장 산업입니다.

머릿글

강창희 미래에셋 부회장 /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소장

혼자 살아야 하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살 것인가〉,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등은 몇 년 전 일본 출장길에 사온 책 제목들이다.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 쓴 책이다.

일본에서는 이런 종류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면서 혼자 사는 노후를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은 물론 앞으로 혼자 살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 노인들까지 이런 책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일본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수는 465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6% 정도를 차지했다. 노인 6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셈이다.

예전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하면 원래부터 결혼을 안 했거나 자녀들과 같이 살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노부부가 사별할 경우 자녀가 같이 살자고 하더라도 노인 스스로 혼자 사는 생활을 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들의 건강문제부터 주거, 자산관리, 사회참여, 여가활동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노하우를 다룬 책들이 다수 출판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수는 102만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였다. 노인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셈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기에 있는 노인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4%, 일본은 11%이다. 그런데도 혼자 사는 노인의 비중은 우리가 일본보다도 훨씬 높다. 그렇다면 10년, 20년 후 우리나라도 지금의 일본처럼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되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늘어나겠는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혼자 사는 노인들의 80% 이상이 여성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7년 정도 길고 보통 남편이 아내보다 3살 정도 나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률적으로 여성들은 남편이 세상 떠난 후 10년 정도는 혼자 살아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도 혼자 사는 노후는 주요한 삶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혼자 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도시화가 진전될 때 핵가족화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핵가족은 새로운 가족형태로 성장해 주류를 이뤘다. 혼자 사는 삶도 마찬가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마음 준비가 필요하다. 혼자 살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새로운 공동체로 편입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취미생활을 갖는 것,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해 나가려는 독립심 등은 1인 가구 시대에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가 노후준비를 할 때는 남편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홀로 남는 아내를 배려하는 준비 또한 필요하다. 혼자 사는 아내의 주거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미리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라도 월세는 아내가 받을 수 있도록 사용권은 아내의 권리로 해두는 방법이 그 한 예이다.

연금과 보험 또한 중요하다. 우선 아내를 연금수령자로 하는 종신형 연금에 가입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게 해두면 아내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가입시킬 필요도 있다. 국민연금은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도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남편의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남편이 사망할 때 받는 보험금으로 홀로 남은 아내가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종신보험은 아내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가 될 것이다. KHBI

● 강창희 부회장

1947년 생으로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시샤대학에서 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3년 한국증권거래소에 입사한 이래 40여 년간 대우증권 동경사무소장, 국제본부장, 리서치본부장, 현대투신운용 대표, 굿모닝투신운용 대표 등을 거치면서 은퇴 및 투자교육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다. 현재도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증권업협회 연수원 등에서 은퇴 및 투자교육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직장인의 노후설계와 퇴직연금〉, 〈당당한 인생후반 30년을 결정하는 자산관리의 원칙〉, 〈펀드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등의 저서가 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March 3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자본주의의 대변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1730회 3월 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윌렘 빔 콕(Willem Wim Kok) 前 네덜란드 총리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이후 유럽으로 번지면서 금융부문에서의 부실한 규제와 감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공공부문의 재정적자는 긴축정책으로 이어져 사회 정치적 불안정을 불러왔고, 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경우처럼 사회 경제적 개혁에서 부진한 국가들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면 시의 적절한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경제나 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시간을 허비할수록 더 심각한 사회 정치적 영향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한편 아시아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성장엔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지만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삶의 질, 빈부 격차, 복지, 실업률 등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역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네덜란드 총리 재임 기간 동안 노사정 협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뤘고, 퇴임 후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있는 빔 콕 전 총리는 가장 조화롭고 성공한 사회란 정부, 민간부문,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 등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라고 주장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빔 콕 전 네덜란드 총리를 모신 가운데, 각 패널들의 토의를 통해 세계적인 위기 이후의 자본주의 변화 흐름을 짚어보고, 이를 통한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네덜란드 니엔로드 경영대학 졸업 | 네덜란드 노동조합연맹 총재 | 네덜란드 하원의원 부총리, 재무부 장관, 총리 | Shell, ING, TNT, KLM 사외이사 | 국제위기감시기구 이사회 회원 | 마드리드클럽 회장(전직 국가수반들로 구성된 기구)

〈진행〉 **최정식** UNI 국제사무금융노조 한국협의회 사무총장

〈패널토의〉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前 산자부 장관, 前 유한대학 총장)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드 대표(前 유한킴벌리 사장, 前 국회의원)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前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 및 연구소장)

1조 달러 행정 2조 달러 정책

제1731회 3월 1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지식경제부 출신 장관으로서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이어 2조 달러 달성에 주력하겠다." 2011년 11월 지식경제부 장관에 취임한 홍석우 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1조 달러 행정, 2조 달러 정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선진국의 면모에 어울리는 따뜻한 행정과 2조 달러 경제를 여는 성장전략을 위해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은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1조 달러 경제를 넘어 2조 달러 경제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중이다. 홍 장관은 한-유럽연합(EU) FTA와 한미FTA 발효, 신흥국의 성장세 등의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현재의 위기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가올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2조 달러를 향한 정부 정책을 총지휘하고 있는 홍석우 장관을 초빙하여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는 따뜻한 행정과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 美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석사 |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 생활산업국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무역투자정책본부장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청장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청장 | 중소기업청 청장 | AT커니코리아 부회장 | KOTRA 사장

〈상훈〉 대통령표창, Governor's Award for Civil Service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조용헌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원광대 불교학 석·박사 |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교수 | 조선일보 '조용헌 살롱' 연재 | KBS 라디오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진행 | MBC TV '조용헌의 한국을 찾아서' 진행

〈저서〉 나는 산으로 간다,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조용헌의 사주명리학 이야기, 조용헌의 사찰기행, 조용헌의 백가기행, 조용헌의 동양학 강의 外

한국경제와 사회가 가야할 길

- 차가운 자본주의는 가고 따뜻한 자본주의 4.0시대가 오다

제1732회 3월 2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경제를 개발하는 관료 자본주의와 국가 독점자본주의 단계를 거쳐 지금은 민간 자본의 성장과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시장 자유적인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장자본주의 체제에서 한강의 기적과 같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선진국 수준인 무역 1조 달러 달성 등 자랑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자살률 1위,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중산층 몰락과 사회 양극화 심화, 대기업의 독점현상 및 중소상권 몰락 등 안타까운 현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폐해 속에 결국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체제의 자본주의 4.0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 4.0시대는 정부와 시장이 상생하고 협력해 서로의 잘못을 보듬어가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중요하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존경받는 윤리적인 기업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는 조선일보 칼럼 연재를 통해 이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불리는 조용헌 칼럼니스트를 초빙하여 자본주의 4.0시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해 찾아보는 한편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제1733회 3월 2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예부터 현인들은 생각의 힘을 격찬하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 경전의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제 과학은 생각의 힘이 전부 우리 의식상태에 달렸음을 밝혀내고 있다. 저명한 양자 물리학자이자 두뇌 연구가인 존 헤글린 박사는 높은 의식상태를 발견하고, 그런 의식은 깨어있거나 잠 또는 꿈과 달리 대단히 큰 정신력과 큰 힘으로써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만났을 때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믿음은 원하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내면의 숨겨진 힘을 잘 활용하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그는 높은 의식상태 발견과 체계적인 명상, 특히 단체명상 시행이 범죄, 사회폭력, 전쟁, 테러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평화를 증진한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를 역설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위대한 성공의 비밀을 소개한 책 〈더 시크릿〉의 공동저자로 유명한 존 헤글린 박사를초빙하여 긍정적인 생각과 내면의 힘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 의식의 힘을 이용해 어떻게 소원을 이루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존 헤글린(John Hagelin) 박사 (더 시크릿 공동저자)

美 다트머스대 물리학과 졸업 | 美 하버드대 물리학 석·박사 | 지구촌평화과학자연합 회장 | 국제무적방어센터 소장 | 과학기술공공행정연구소 소장 | 마하리쉬경영대학교 물리학과장 | 데이빗린치재단 이사장

〈상훈〉 킬비(kilby)상 수상

〈저서〉 완전한 정부를 위한 안내서, 더 시크릿(공)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April

매주 목요일 07:00~09:00

세계적 Big Bang과 우리가 나아갈 길

제1734회 4월 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최근 5년 동안 세계는 엄청난 규모로 다양한 측면에서 빅뱅이 형성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기를 겪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동반 추락하고 동아시아 축이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한 그물망 안에서 촘촘히 엮이면서 세계화로 인한 이익보다 폐해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빅뱅의 현실이다.

현재 세계적 빅뱅의 중심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시장경제의 실패, 지배구조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구원자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까지 내부문제에만 관심을 보이던 모습에서 탈피해 세계의 힘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해시대 개막으로 얻어왔던 경제적 이익 균형과 한미동맹 체제의 안보 균형의 공존이라는 우리의 생존의 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격변기는 우리에게 있어 위기이자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외교적으로 대전환점을 맞고 있는 한국이 중국에 맞서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안보, 경제적인 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관계 · 정계 · 학계를 두루 거친 경제관료 출신의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을 초빙하여 중국의 향후 10년을 코페르니쿠스적 변환기로 전망하는 배경과 함께, 한미동맹의 방향성과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중국을 대하는 5계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고려대 상학과 졸업 | 美 위스콘신대 매디슨교 경영학 석사 |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 IMF협상 수석대표, 뉴욕 외채협상 수석대표 | 재정경제부 차관 | 산업자원부 장관 |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국제금융연구센터 소장 | 중국 북경대 초빙교수, 인민대 초빙교수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국제회계기준재단 이사

〈상훈〉 홍조근정훈장, 청조근정훈장
〈저서〉 거대 중국과의 대화, 키움과 나눔을 넘어서, 외환위기 징비록,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이성적 친구 감성적 타인 外

한국과 독일의 21세기 경제와 정치전망

제1735회 4월 1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한스 울리히 자이트(Hans-Ulrich Seidt) 주한 독일대사

올해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동서로 분단됐던 독일이 재통일된 지 21년째 되는 해이다. 한국과 독일은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많다. 분단 역사가 대표적이다. 전쟁이 끝난 후 국가 재건을 한 과정도 유사하다. 사람의 손과 마음으로 뭉쳐 일으킨 것도 그렇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을 얻어오는 조건으로 파독한 광부와 간호사들은 한국 현대사의 밑거름이자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더욱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의 지나온 역사에서 한국의 미래를 엿보기도 한다. 독일은 통일에 대한 전 국민의 투자와 준비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주변국의 안정을 돕는 중심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되었다. 독일 통일의 과정은 서독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도 있었지만 동독이 적극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부임 3주년을 맞은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는 현재 아시아는 경제, 문화, 학문 등 모든 분야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에 북한만 빠질 수도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또는 남북한 공동경제체제를 유지한다면 세계 상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볼 때,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라고 강조하는 자이트 독일대사를 초빙하여 독일에서 배워야 할 점과 양국 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튀빙엔대학 법학, 제네바대학 역사학, 본대학 정치학 수학 |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 수학 | 美 발파라이소대학교 명예박사 | 1982년 독일 외무부 입부 | 駐 모스크바 독일대사관 근무 | 駐 나이로비 독일대사관 근무 | 駐 벨기에 나토 상설대표부 근무 | 駐 워싱턴 독일대사관 근무 | 駐 아프가니스탄 대사 |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오토주르연구소 강사 | 스위스 아프가니스탄연구소 고문

4월

테마파크 디자이너 니나 안이 색칠한 Fun한 세계와 관광산업의 미래

- 문화혁명가 월트 디즈니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1736회 4월 1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니나 안 테마파크 디자이너

월트 디즈니는 자신의 예술세계였던 만화영화 제작과 결합하여 역사상 최초로 '디즈니랜드'라는 놀이공원(Theme Park)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에서 출발한 그의 창작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영화제작과 대중음악, 쇼, 방송, 공연 및 연예사업으로 확장되어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걸친 흥행사업으로 발전하였다.

월트 디즈니 코퍼레이션은 나아가 종합 리조트 건설과 함께 이를 종합 레저산업으로 확대해 거의 모든 분야와 접목시키며 새로운 장르의 사업으로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월트 디즈니 코퍼레이션의 발전은 엔터테인먼트와 문화로 인한 생활 습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레저와 엔터테인먼트가 인류생활의 패턴을 바꿔놓는, 하나의 혁명과도 같은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엔터테인먼트는 그 자체가 상품이고, 일자리이고, 성공의 기회가 되며,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최대의 산업으로 떠올랐다.

레저와 휴양, 엔터테인먼트의 3박자로 구성된 관광산업은 한국의 미래산업으로 가능성이 무한하다. 한국은 세계적인 관광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아직 조직적인 관광시스템이 미비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세계 유명 테마파크를 디자인해온 '테마파크 디자이너' 니나 안을 초빙하여 관광산업의 미래를 전망해보고,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美 샌프란시스코대학 졸업 | 美 샌프란시스코 아카데미 오브 아트 미술대학 졸업 | 월드 디즈니 유니버시티 졸업 | 미국 워커그룹, 네델 파트너쉽 등 건축설계 회사 근무 | 미국 로즈엔젤레스 디자인 얼라이언스 대표이사 | 미국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그룹, 파트너 | 서울시 푸른도시공원국 자문위원 | MBC 문화방송 자문위원 | 미국 커닝햄 그룹 건축·리조트 디자이너

〈프로젝트〉 워너브라더스 테마파크(스페인),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올란도(플로리다), 라스베이거스 시저스 팔레스 포룸 숍, 서울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동경 롯데월드, 삼성 에버랜드, 일본 도쿄 오다이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外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잊혀진 질문

제1737회 4월 2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차동엽 미래사목연구소 소장

평생 종교를 갖지 않았던 삼성 이병철 회장이 1987년 타계하기 전 가깝게 지내던 박희봉 신부에게 남긴 삶과 죽음, 성(聖)과 속(俗)에 관한 질문 24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질문은 잊혀졌다. 그런데 2년 전, 밀리언셀러 〈무지개원리〉의 저자로 유명한 차동엽 신부는 몬시뇰 신부로부터 하나의 제안을 받았다. 누군가 한 번쯤은 24가지 질문에 통쾌하게 답변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차 신부는 24년 전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질문지를 통해 모두에게 '희망'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는 생각, 즉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인생인가?'라는 의문을 마음 밖으로 끌어낸 것이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 푸른 하늘과 잔잔한 수면을 보면서도 되돌아오는 질문들은 생의 숙제처럼 보인다. 차 신부는 이 회장의 생의 근본적 질문을 토대로 우리 시대 삶의 처절한 질문들을 탐사해 질문덩이를 새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와 경험, 깨달음을 바탕으로 거기에 하나하나 쉽고 알기 쉽게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밀리언셀러 저자이자 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시대의 멘토 차동엽 신부를 초빙하여 모두가 살기 어렵고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이병철 회장의 '잊혀진 질문'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공대 졸업 | 서울 카톨릭대 신학부 졸업 | 오스트리아 빈대학 성서신학 석사 | 오스트리아 빈대학 사목신학 박사 | 1991년 사제서품 | 인천교구 강화본당, 고촌본당, 하서본당 주임 | 인천교구 기획관, 인천카톨릭대 교수

〈저서〉 여기에 물이 있다, 밭에 묻힌 보물, Hi 미스터 갓(역), 무지개원리, 바보 ZONE, 잊혀진 질문 外

Issue & Seminar 1

채명신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총재

1월 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신년하례회 겸 제1722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살아있는 전쟁영웅이 한반도에 전하는 희망의 리더십

나는 TV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꼭 챙겨본다. 동물은 자기 자신과 새끼들의 먹이를 구하기 위해, 천적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짝짓기를 하기 위해 세력싸움을 하는 등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른다. 우리는 이것을 '정글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정글의 법칙은 첫째, 약육강식이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 둘째, 적자생존이다.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투쟁에서 승리해 살아갈 자격이 있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약자가 항상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초원에서 풀을 뜯던 얼룩말 여섯 마리가 두 마리의 사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당연히 얼룩말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다 맨 뒤에 처진 얼룩말 한 마리가 희생됐다. 그러자 다섯 마리가 갑자기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 특이한 진형을 짰다. 머리를 서로 맞대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향한 채 사자가 다가오면 사정없이 발길질을 하는 것이다. 한참 후 결국 사자들이 포기하고 사라졌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약자도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합심하고 단결하면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일성의 제의 뿌리치고 북한 탈출

1946년 2월 8일,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평양학원 개원식이 열렸다. 그 부근의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나도 개원식에 초청받아 갔다. 학교에서 가까운 위치에 들어선 평양학원은 공산당과 인민군 간부 양성소로 훗날 북한 군사학교들의 모태가 되었다. 원장으로 부임한 김책과 몇 차례 만났는데, 독립운동가인 아버지가 숨겨둔 사상서적을 탐독했던 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대화가 통했다.

개원식이 끝나고 다과회가 열린 자리에서 김책이 나를 김일성에게 소개하자 그가 내 어깨에 한 손을 얹고는 "동무, 나와 같이 평양에 갑시다. 동무 같은 젊은 사람이 필요하오. 석 달만 수고하면 동무의 장래는 내가 보장하겠소"라고 했다. 30대 중반의 김일성은 다소 검고 둥근 얼굴에 미소를 잔뜩 머금고 있었다.

가까운 장래에 적장이 될 것을 알았던 것일까? "노모를 모시고 있어서 고향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는 김일성의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다. 김일성은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음 기회에 보자는 말을 남겼다.

외조부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고, 덕분에 모태신앙을 가졌던 나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여겼던 김일성과 하나가 될 수 없었다. 결국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1947년 2월 초 야음을 틈타 남쪽으로 향했다. 기차를 타고 원산으로 갔다가 철원으로 내려 왔다. 그런데 연천에서 한탄강을 건너기 직전 보안서 요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열흘 동안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고향에 신원조회를 해서 그 결과가 오는 날이면 즉결 처형을 당하거나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갈 판이었다.

그런데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탈출해 서울로 오게 되었다.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드디어 응답이 온 것이다. 소련군 대령이 순찰을 나왔는데, 평소 배워두었던 약간의 소련말 실력을 총동원해 석방을 요청했다. "다와라시(동지)! 나는 우치젤리(선생)인데, 게이죠(서울)에 가서 친척의 젱기(돈)를 다와이(가져다)해 소련으로 유학을 가려던 참이었는데 무고하게 붙잡혀 들어왔소"라며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호소했더니 대령이 즉석에서 석방 지시를 내렸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이긴다

우여곡절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서 남쪽으로 내려온 나는 우연히 육군사관학교 5기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됐다. 육사에 응시해 교육을 받고 1948년 4월 6일 졸업 후 소위로 임관했는데, 격동의 해방 정국은 나를 그냥 두지 않았다. 당시 한반도에서 좌우 이념전쟁의 최전선이었던 제주도로 배치된 것이다.

육사 졸업 3일 전에 '제주 4.3 공산 폭동사건'이 일어났다. 공산당들이 제주 15개 지서 중에서 14개를 점령한 상태였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부터 몇 발의 총성이 울렸다. 그 때 정말 내가 전쟁터로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42명의 소대원과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

는데 84개의 눈빛에서 증오와 살기가 흘러넘쳤다. 장교 숙소로 돌아왔는데 사지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자 밥조차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다.

숙소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음성이 들렸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도와줘라'라는 응답이 온 것이다. 그 길로 바로 짐을 싸서 소대 막사로 갔다. 그리고 '난 지금부터 너희와 함께 기거한다'라고 외쳤다. 그때부터 소대원들을 정말 내 친동생이나 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안락한 숙소를 거부하고 누추한 소대 막사를 선택한 나를 바라보는 장병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렇게 몇 주를 보내자 소대원들이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했다.

제주도 토벌 과정에서 공산 게릴라들의 끊임없는 암살 기도가 이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나 또한 암살하기 위해 미인계까지 동원했는데 실패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에서 끝없이 암살이 기도될 때마다 내 목숨을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부하들이었다. 부하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졌을 때 진심으로 행복했다. '마음을 얻어야 이긴다'는 골육지정(骨肉之情) 리더십은 이렇게 탄생했다.

제주도에서 4개월간 근무한 후 육지로 올라와 1년 여 만에 대위로 진급했다. 군대가 급속히 팽창할 때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위로 진급하고 1사단 11연대 중대장으로 부임했다. 당시 개성이 38선 이남에 있었는데, 북한과 개성 뒤쪽의 송악산을 경계로 이어진 38선을 두고 뺏고 뺏기는 전투를 계속했다. 당시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가 문산 시내 초입에 지금도 세워져있다. 북한은 이미 6.25전쟁 이전부터 갖은 방법을 동원해 남쪽을 공격해왔다.

중대장에 임명돼 빨치산 토벌을 위해 안동을 거쳐 영덕으로 들어갔을 때의 일이다. 현장을 둘러보니 농촌사람들의 사정이 너무나 불쌍했다. 낮에는 경찰이나 군대가 들어가서 닭이나 돼지를 잡아먹고, 밤에는 빨치산들이 내려와 의복과 식량을 강탈해갔다.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으로 변하는 세상이라 민심이 흉흉해져 있었다.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떤 작전도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대민 접촉 규율을 하나씩 정하고, 언행을 정중히 하는 한편 민폐를 끼칠 경우 엄히 다스렸다. 마을로 작전을 나갈 때는 건빵과 담배를 충분히 지급해 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 부식비를 아껴서 주민들이 말려놓은 곶감을 현금을 주고 사주기도 했다. 그러자 주민들이 우리를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라고 불렀다.

그렇게 민심을 얻으면서 주민들에게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빨치산이 와서 양식을 달라고 하면 다 주십시오. 그걸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빨치산이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얼마의 양식을 가져갔고, 어디까지 운반해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이후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잇따랐고, 이를 토대로 통계를 내봤더니 적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그려졌다. 결국 아군의 희생 없이 효과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었다.

6.25전쟁은 북한의 기습공격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6.25전쟁이 일어났다. 공산군은 2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내려왔고 우리는 10만이 겨우 넘었다. 그러나 문제는 화력이었다. 공산군은 242대의 T34형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밀고 내려왔지만 우리는 한 대의 탱크도 없었다. 뭘 가지고 싸우겠는가? 들어가는 부대마다 모조리 당했다.

중요한 것은 전날인 24일 토요일 12시를 기해서 우리 군은 전후방 할 것 없이 지휘관을 포함한 절반 이상의 병력이 외출을 나간 상황이었다. 결국 북한의 기습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상황을 지휘할 지휘관이 없었다.

25일 오전 11시경 탱크를 앞세운 공산군이 포천까지 내려왔지만 우리는 진짜 적이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지프를 타고 돌면서 국군장병들은 부대로 복귀하라는 방송을 하자 사람들이 불안해 거리로 나왔으나 정부는 적이 침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용감한 국군이 반격해 추격하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피난가려고 집을 나왔던 사람들이 이 말만 믿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렇게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었고, 전투 가능한 부대는 모조리 전방으로 재배치되었다. 심지어는 총도 쏴보지 못한 사관생도들까지 전방으로 내보내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 27일 밤에는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탱크가 포를 쏘며 들어오자 놀란 사람들이 한밤중에 보따리를 싸들고 피난을 가기 위해 한강 인도교로 몰려들었다. 그런데 적의 탱크를 막기 위해 우리 공병이 28일 새벽에 먼저 인도교를 폭파시켜버렸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강물로 떨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아우성과 비명이 메아리쳤다.

당시 서울대병원에는 3일 싸우는 동안 발생한 부상병들이 치료도 못 받고 병원 공터에 꽉 들어차있었다. 이곳에 공산군 일부 병력이 들어가서 부상병은 물론 민간인들까지 모조리 사살해버렸다. 또 다른 일부 병력은 서대문형무소로 가서 죄수들을 석방시켰다. 살판난 것은 죄수들이었다. 1000여 명의 죄수들이 민가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유린했다. 죄수들이 공산투사로 돌변해 인민의 시대를 외친 것이다. 그렇게 28일 오전을 기해 서울은 완전히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일본에 있던 맥아더 장군은 6.25전쟁이 일어나자 한국으로 날아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군지도자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우리 군이 싸울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미군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 후 미 24사단의 팀 장군이 이끄는 1개 대대병력이 선발대로 부산으로 넘어와 북진하면서 공산군과 지연전을 벌였다.

조치원 근처에 가면 '개미고개'라는 지명이 있다. '스미스부대'가 한국에서 최초로 적군과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스미스부대는 거의 궤멸될 때까지 일주일 동안 버티면서 적군의 남진을 저지해주었다. 그 덕분에 우리 아군이 전열을 정비할 수 있었다. 미 24사단의 팀 장군은 대전에서 최후까지 싸우다가 포로가 되기도 했다. 3년이 넘는 한국전쟁 동안 한국군 사단장, 연대장급 지휘관이 최후까지 싸우다가 포로가 되거나 전사한 예가 없다. 유엔군 총사령관이자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밴플리트 장군은 공군으로 참전한 아들이 비행정찰을 나갔다가 실종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한국 전선에 배치돼 있었다. 우리는 미국의 후속부대를 포함한 16개국의 군대가 참전해 용전분투한 덕분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서울을 점령당한 후 국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최종 방어선이 영천 지역까지 내려왔다. 이 때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은밀히 계획해 추진했다. 그런데 인천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8~9m로 상륙작전 성공확률이 희박하다는 이유 때문에 워싱턴의 반대에 부딪쳤다. 맥아더 장군은 이에 대해 "이 전쟁은 한국 국민의 사기가 중요하다. 사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빼앗긴 수도 서울을 하루빨리 회복해줘야 하는데, 수도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상륙해서 적의 퇴로를 차단해야만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로 워싱턴을 설득했다. 드디어 9월 15일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됐고, 곧바로 수도 서울로 진격해서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다. 이 작전을 계기로 전쟁의 전세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대비가 없다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

6.25전쟁은 우리가 완전히 기습당한 전쟁이었다. 전후방 할 것 없이 외출을 나간 상황에서 적의 공격에 대항할 지휘관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미스부대나 인천상륙작전을 전개한 맥아더 장군 같은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6월 28일 수도 서울을 점령당하는 것으로 전쟁은 끝났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맥아더 장군을 살인자로 몰아붙여서 그의 동상을 철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날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해준 미국을 부정하는 좌경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6.25전쟁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이 무엇인가? 대비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도움은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지금 우리가 일본에 동맹을 구하겠는가, 중국, 러시아에 동맹을 구하겠는가? 6.25전쟁과 월남전을 통해 봐왔듯이 미국은 한 번 철수했거나 부패한 나라는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 현상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김정일이 사망했다고 추모분위기를 조성하고 야단인데 왜 그래야 하는가? 김정일은 300만 명이 굶어죽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인물이다. 핵무기를 가지고 미사일 개발에 몰두할 뿐이었다. 김정은은 또 뭘 했는가? 북한체제가 좋다고 생각되면 북한으로 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가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으면서 대한민국이 좌초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생존과 발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KHU

창립 37주년 기념포럼 및 제1726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2012년 국내외 정세변화와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

–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축사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인간개발연구원의 창립 37주년을 축하드린다. 연구원의 부탁으로 각 지자체에 강연을 갈 때마다 그 지역의 열기에 감동을 받고 오히려 배우고 돌아온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간 소통과 서로 화합하는 길에 열정을 다해 앞장서온 장만기 회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자원도 적고, 땅도 좁은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적 위상을 높이게 된 것은 교육의 DNA 때문이다. 율곡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지혜를 얻기 위함인데, 지혜에는 3등급이 있다고 했다. 제일 높은 등급이 상지(上智), 중간이 중지(中智), 마지막이 하지(下智)이다. 상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다. 중지는 일어난 상황을 포착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는 일이 일어난 것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러한 예지력이나 미래 혜안을 갖는 데는 교육의 사다리밖에 방법이 없다.

지역이 살아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미래의 희망으로 열어가는 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전자정신'이 필요하다. 인간개발연구원에서도 교육을 통해 주전자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가 교육으로 깨닫는 순간에 주인정신을 가지고 시대적 책임을 느낄 수 있다. 전문성은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세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닦는 각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자신감과 자긍심이 생긴다.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이듯이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을 느끼는 겸손함, 자신감, 자긍심이 목마른 이웃에게 재능과 교육의 나눔을 흘러내리게 할 수 있는 단물이 된다. 나눔과 헌신과 사랑의 단물이 인간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부어내려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축사

이원기
원풍물산(주) 회장

인간개발연구원의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해온 것을 다행이자 행복하게 생각한다. 1990년부터 연구원에 참여해 22년이 지났는데, 연구원의 조찬세미나는 매주 한 번씩 개최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 강의를 듣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때는 연구원에서 보내주는 CD를 2~3번 다시 듣는다. 회사 간부들에게도 변화를 유도하고자 돌려가면서 듣게 한다. 그 덕분에 우리 회사도 많은 변화와 성장을 해왔다.

이제는 연구원 조찬에 참석하는 것이 생활화, 습관화되었다. 목요일 조찬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요일 저녁에는 아예 약속을 잡지 않고 일찍 귀가해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온다.

그렇게 조찬세미나에 나와서 열심히 듣고 메모한 끝에 22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정보가 내 머릿속에 지능과 지혜로 쌓여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수시로 부닥치게 되는 글로벌한 문제와 글로컬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

누구도 나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회원활동을 할 수 있겠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20년은 더 참여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20년 후면 나도 100세가 된다. 연구원에서는 100세 회원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원은 젊은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100세 회원들도 참여하는 연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건강관리를 잘 하고, 기업경영도 잘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적호기심의 끈을 놓지 말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연구원이 발전하고 영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연구원이 젊은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100세 노인들도 상당수 회원으로 활동하는 연구원이 되길 바라며 축사를 마친다.

축사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지난 37년간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단계를 거치고 민주화가 되는 전 과정을 묵묵히 지켜 오신 장만기 회장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사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끊임없이 선진국을 추격해왔다. 그 추격의 과정이 물적자본화를 거쳐 인적개발의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선진국 문턱에서 사회적자본화 과정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이러한 인적자원 개발의 첨병 역할을 충실히 해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지금 세상은 혼돈의 세계를 거쳐서 빅뱅의 단계로 가고 있고, 그 빅뱅의 단계는 사회지배구조의 위기로 명명할 수 있을 만큼 혼돈에 빠져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적인 거버넌스의 위기,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이 보이지 않는 국제적인 지배구조의 위기에 빠져있다. 한국은 지난 25년간의 산업화, 그 이후 25년간의 민주화를 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서로 다투다가 공멸하는 지배구조의 위기에 빠져있다. 박정희시대의 정치권과 관료, 재벌의 영합이라는 3각 지배구조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시민사회, 정부, 시장이라는 신삼각형구조도 실패로 돌아간 지금, 과연 한국에서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소통이 새로운 지배구조로 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에 빠져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이러한 사회 지배구조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돌파하는가, 새로운 지배구조를 어떻게 창출하는가 하는 중대한 시기에 영웅적 리더를 가진 사람을 큰바위 얼굴을 기다리듯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물개처럼 숨 쉬지 않고 고래처럼 숨을 쉬는 영웅,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이 어떤 인물인지를 생각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한다.

주제발표

문창극
중앙일보 대기자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15년 전만 하더라도 정권교체, 특히 평화적 정권교체는 불온한 상상에 불과했다. 최근 아랍과 아프리카 등의 소요를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하고 성숙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는 쿠데타, 강제적인 억압에 의한 정권교체는 없다. 모든 것이 투표로 진행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뿌리를 내렸다.

선거에서 예측이란 불가능한 것

선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한쪽에서는 정권을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정권을 잡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분노'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 '두려움'과 '분노'의 자리에 '평화'가 자리해야 한다.

특정 정치 세력의 편을 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다. 나는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올 4월과 12월 선거를 평화적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올해 선거결과를 예측해주길 바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거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원래 정치학, 사회과학에서 예측을 하기란 힘들다. 과학은 자료를 모아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따라 자료가 맞는지 증거를 확인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은 과학이 될 수 없다.

1975년 신문사에 입사해 올해로 37년째 언론인 생활을 하고 있다. 기자로서 첫 경험한 선거가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말기 선거였다. 그때는 유신정우회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여야가 싸웠는데, 총 투표수에서 1.2%를 여당인 공화당이 졌다. 하지만 당시 신문사나 정치부 기자 아무도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 1986년 전두환 정권 말기의 선거에서도 '바람'이 일어나서 야당이 그런 세를 얻을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 혼돈의 시대, 빅뱅의 시대에는 민심이 어디로 갈 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런 움직임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거나,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민심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다. 그런 게 왜 없을까?

첫째, 과거의 기준이 무너졌다. 변혁기에는 기준이 모두 무너져있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 결혼하면 집을 먼저 사야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할 생각도 없고, 결혼해도 전세를 살면서 인생을 즐기겠다고 한다. 이렇게 기준이 달라졌는데, 옛날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도 기준이 달라졌다. 우리 연령대는 신문, 방송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였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트위터 등 SNS로 통한다.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변화로 생각과 기준, 가치관이 같아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야당이 유리한 것은 사실, 자만과 실수 피해야

한나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처음에는 기세 좋게 160석을 예상했다. 그런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세상이 바뀌었음을 느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상치를 낮췄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폭풍의 결과로 얻었던 121석이나 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최근에는 당내 부패문제까지 불거졌다.

민주통합당은 어떨까? 한나라당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다. 우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승리 기억이 최근에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승리의 기억이 5년 전이다. 기억이 강한 사람일수록 승리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지금은 복지와 분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복지와 분배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은 불리하고 민주통합당은 유리하다. 그럼 선거결과는 불 보듯 뻔하겠지만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선거는 KO로 이기고 지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우리나라 선거는 내가 잘해서 이긴다기보다 상대의 실수를 이용해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 4월 총선까지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일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자만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고, 그 실수에 대한 반작용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공천이 중요하다. 지금 양쪽 모두 백지상태에서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역의원 170명 중 50%를 교체하겠다고 한다. 전국구를 빼고 지역구 50% 교체라면 70명 정도가 대상이다. 그러니 앞으로 누가 잘할 것인가를 두고 각 지역마다 공천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셋째, 대결구도가 중요하다. 선거는 나 혼자 잘났다고 당선되는 게 아니다. 여당은 한 명인데 야당이 4명으로 갈라졌다면 야당은 죽어도 당선될 수 없다. 상대에 따라 다른 구도가 중요한 이유다. 민주통합당은 앞으로의 구도상 통합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분열 쪽으로 가고 있어 구도상 야당보다 불리하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지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진다는 의미가 과반수는 확실히 어렵고, 과연 다수당이라도 할 수 있

겠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대선에서 중요한 곳이 부산경남(PK)지역이다. 노무현 후계 세대들이 모두 PK 출신이다. 이번 총선에서 PK 지역의 노무현 출신 민주통합당이 큰 승리를 거두면 대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치는 허구의 세계, 성실함만으로는 힘들어

과거 우리 정치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다. 먼저 우리나라 대선은 호남과 충청을 중심으로 한 서쪽과 PK, TK,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동쪽의 대결이었다. 둘째, 대세론과 연합론이 정치인들의 관심사였다. 셋째, 현직 대통령이 어느 쪽이냐를 중요시했다. 어떤 사람들은 단기적인 흥행이 중요하다고도 이야기한다. 이 모든 것이 전통적인 잣대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잣대가 모두 무너졌다. 이제는 동서의 대결이 아니라 TK와 PK가 어떻게 갈라질 것인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40대가 중요했고, 기준이었다. 인구분포에서 20~30대가 46%, 50대 이상이 32%이다. 20~30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젊은층이 지지하는 쪽이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젊은층의 투표율이 낮기 때문이다. 20~30대 구분과 50~60대 구분을 합치면 같아진다. 그래서 40대가 누구를 지지하는지가 선거의 관건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40대의 의미가 사라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분석해보면 20~40대가 모두 같은 편이 돼버렸다.

최근 정치계에서 안철수 원장이 큰 바람을 일으켰다. 안 원장이 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안 원장이 대선에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안철수 바람이 불 때부터 '안철수는 대선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주 얘기했었다. 그럴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안철수 바람이 12월까지 불어야 하는데, 바람은 1년 내내 불지 않는다. 기껏해야 3~4개월 부는 것이 바람의 속성이다. 실제 안 원장의 경우도 지난해 9~10월보다 바람이 잦아들었다. 둘째, 정치인은 정치인의 기질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하다. 정치인의 캐릭터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다. 정계에서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다. 셋째, 정치는 세력의 힘으로 하는 것인데, 안 원장은 그런 세력이 없다. 동서고금에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천하 대권을 잡은 전례가 없다. 넷째, 정치인이 되려면 권력의지가 강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개천에서 난 용'이 되려면 여의주를 낚아챌 강한 이빨이 있어야 한다.

정치는 사실 허구의 세계이다. 얼마 전 작고하신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은 '정치 세계는 허위 구조의 세계'라는 문학적 표현을 썼다. 정치에 허위의 세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국민은 더 피곤해진다. 현실정치는 '진실'이 아니라 '허위'의 구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허위의 구조와 진실이 가까워질수록 참된 정치가 되는데, 이게 떨어질수록 엉뚱한 세계에서 놀게 된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들은 한국 정치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다만 안철수 원장이 대선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8~9월쯤 어느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다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박정희 vs 노무현 대결, 겸손과 성찰의 리더 나와야

우리는 예측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눈으로 선거를 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겸손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부터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는 오만함을 가졌다. 이 오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기도 하다. 권력의 오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권교체이다.

대권을 노리는 리더라면 워싱턴과 링컨의 절제와 겸손과 성찰을 배워야 한다. 워싱턴은 '왕이 되라'는 주변의 달콤한 권고를 뿌리쳤다. 링컨은 중요한 연설 일정이 잡히면 일주일 동안 헌법과 성경만 가지고 조용한 곳에 들어가 묵상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게티스버그 연설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듯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신중할 수 있는, 반성할 수 있는 지도자는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 '박정희신화 대 노무현신화'의 대결로 압축된다. 박정희시대의 세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 노무현 세력은 우리나라의 민주세력을 대변한다. 앞으로 이 두 세력이 교대로 정권을 잡는다면 사회의 자동조절 작용 차원에서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나라가 잘 될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할까? 첫째, 국내적으로 경제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국민 판단의 몫이다. 국민들이 경제성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박정희시대 개발세력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반대로 복지를 우선해야한다고 판단하면 노무현 세력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국민들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선거는 현재만으로는 안 된다. 미래는 혼돈의 세계이다. 한국의 경우 한반도 주변의 열강을 헤쳐 나가야 한다.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 전략도 신경 써야 한다. 국방도 튼튼히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

람이 누구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대선은 아직 10개월 이상 남았다. 우리 스스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 그쪽 소리만 들으려 하지 말고 귀를 열어야 한다. 말도 잘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마음가짐을 다졌으면 좋겠다.

패널토의 1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선거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법칙을 가지고 예측해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예측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시대정신의 법칙이다. 국민들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 경제 살리기는 시대과제이다. 정말 하고 싶지만 못했던 것들이 시대정신이다. 통일문제, 통합의 문제가 그렇다. 지금은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대세이자 시대정신이다.

두 번째는 중도선점의 법칙, 나아가 표의 확장성 법칙이 있다. 대한민국 대선에서 40대 중도 화이트컬러, 수도권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표는 40대 중도 화이트컬러, 수도권에서의 지지도가 자신의 평균 지지도보다 훨씬 낮다. 이렇게 표의 확장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세가 될 수 없다.

2002년 노무현 후보 등장 초기 지지도는 4%였다. 이것이 4개월 만에 역전되었다. 특권과 차별없는 세상,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노무현식 정치를 관통하는 정신들이다. 이를 통해 낡음과 새로움의 구도, 세대의 축, 이념의 축, 계층의 축이 형성되면서 당선될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구도의 축에 따라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박근혜, 이건희를 벤치마킹해야 성공

선거는 어떤 구도와 연대로 만들어지는 대원칙이 있다.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는 단순히 박정희 대 노무현이 아니라 '민주적인 박정희 대 합리적인 노무현'의 싸움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박정희 패러다임과 김대중 패러다임이 존재하는데, 김대중 패러다임은 노무현 모델을 통해서 진화하고 발전했다. 반면 박정희 패러다임은 여전히 박정희 패러다임으로 한 번도 진화한 적이 없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표는 아버지를 뛰어넘을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박 전 대표가 벤치마킹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재계 지도자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다. 그런데 2위는 이병철 회장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다. 1993년 '마누라 빼고는 모두 바꿔라'는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500억에 달하는 불량 제품을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린 것도 큰 영향을 줬다.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지향하면서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박 전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대선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족했던 민주성을 강화시켜 산업화와 민주세력이 결합되는 민주적인 박정희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민주통합당에 가장 부족한 부분은 자신들이 왜 4년 전에 정권을 뺏겼는지를 참회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수하고 오만한 세력은 응징을 당한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힘의 정치(power), 진보와 보수간 이념적 양극단(Polarization)의 정치, 포퓰리즘(Populism)에 의존하는 정치 등 3P의 정치에서 벗어나 타협(Compromise), 협조(Cooperation), 합의(Consensus)가 토대가 되는 3C 정치로 세상을 끌어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패널토의 2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

시대적 과제는 어떻게 형성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환경, 장기적인 지향점, 국민적 불만 등이 시대적 과제를 형성한다.

국민들이 현 정부 들어와 가장 불만인 것이 세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박정희 패러다임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이 정부 들어와 확연해졌다. 국가주도의 성장, 국가주도의 경제,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 민주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게 박정희 패러다임의 핵심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는 정부주도적이다. 민주화에 있어서도 일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정희 패러다임이 지금의 시대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두 번째 불만은 바로 위기관

리의 실패이다. 우리는 한반도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DJ정부 이후로 가지고 있던 불만은 '왜 북한을 따끔하게 손봐주지 못 하는가'였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한반도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드러냈다. 세 번째 불만은 정치개혁에 대한 불만이다. 민주화 이후 각 정부는 그 나름대로의 정치개혁을 위해 헌신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 외면 때문에 정치개혁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고, 이것이 결국 정치부패를 더욱 확산시켰다. 정치부패가 만연하면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그 부분에서 이 정부가 실패한 것이다. 결국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민주주의의 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시점에 와서 분명해졌다.

시대적 환경, 장기적 지향, 국민적 불만이 시대적 과제 형성

그 다음 큰 흐름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환경이 있다. 지금은 지식인, 엘리트보다 일반 국민, 대중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시대이다. 이제는 단순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통해 본인들이 직접 제조와 유통에도 참여하기 원한다. 실제로 이들은 기존 정당이 제공한 인물만 소비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나아가 기존 정당이 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직접 새로운 인물을 제조한다. 사실 안철수 현상도 프로슈머(Prosumer)적 대중이 만들어낸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프로슈머에게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그들은 새로운 인물을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버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

그 다음 요소가 장기적인 지향점이다. 근대국가들은 국가의 건설, 민족국가의 건설, 민주화 산업화의 과제, 복지국가의 과제 등 큰 과제를 단계적으로 밟아온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짧은 시간에 민주국가의 건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향점은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이 3가지 요소를 묶어서 생각하면,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정치는 시민이 주도하는 정치로 바뀌고 있다.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시민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정당이 더 이상 시민을 가로막는 벽을 쌓을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

패널토의 3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

선거는 구도, 인물, 비전, 전략 등 4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치러진다. 학계에서는 총선은 심판의 선거, 대선은 전망의 선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선거는 모두 심판의 선거였다. 올해 총선과 대선도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 주요 흐름을 형성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 유권자들이 친이명박 대 반이명박으로 나뉠 것이다. 대선의 경우는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가 6월 민주화운동 25주년이다. 산업화 25년, 민주화 25년의 결산이라는 의미가 크다. 그리고 낡은 정치 대 새로운 정치가 2040세대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구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른바 비상식 대 상식, 특권 대 평등, 정당정치 대 시민정치의 구도가 잡히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표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수도권은 지역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영호남 지역주의가 작동한다. 이는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에서도 나타난 성향이다. 다만 영남 지역, 이른바 PK 지역에서 현재 야권이 얼마나 선전하느냐 하는 것은 PK 독립의 문제로 선거의 관건이 될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이번 선거의 핵심

큰 맥락에서 두 번째는 시대정신의 문제이다. 선거는 〈파우스트〉에 언급되며 유명해진 '시대정신'과도 무관하지 않다. 해방 이후 우리에게는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라는 2개의 시대정신이 있었다. 그렇다면 산업화 25년 민주화 25년의 시점에서 무엇이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할까?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보수는 선진화, 진보는 복지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선진화 담론은 거의 폐기됐다. 한나라당 비대위조차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은 1987년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대응해서 한국 사회의 발전 모델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가 새로운 시대정신의 척도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대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과정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재분배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다. 이 두 가지가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이번 선거에서 제시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든 한명숙 대표든 누가 대선후보가 되든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가지고 보수적 비전과 진보적 비전이 충돌하는 것이 올해 선거의 핵심이다.

우리 사회의 두 가지 핵심적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다. 바라건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에 더해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노동과 자본, 사회적 강자와 약자간의 사회협약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타협이 모색되지 않으면 분열의 시대가 반복될 것이다. KHOI

송희연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초대대표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 (dal2020@khdi.or.kr)

동북아 글로벌 교육의 허브

동서 지식·문화교류의 장으로 성장할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사진 · 오경근 원장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무한경쟁 속에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송도글로벌대학은 글로벌 인재양성과 연구개발(R&D)의 요람이요, 동서 지식 · 문화교류의 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모방기술' 경제를 기반으로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한국경제가 '원천기술'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 인도 등에 추월당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 송희연 박사의 경제 진단이다.
최근 기업들의 화두가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먹거리 찾기'라는 점을 전제로 송 박사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우리나라 R&D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이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다. 외국 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하나의 캠퍼스에 모아 종합대학으로서의 진용을 갖추면 국내 대학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글로벌 인재도 양성하고, 국내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송도글로벌대학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셈이다.
6년 여의 준비기간 끝에 오는 3월 개교하는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에는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의 한국 캠퍼스를 선두로 미국의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벨기에 겐트대 등 10여개 대학이 이미 분교 설립을 확정짓거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초 세계 최빈국에서 40여 년 동안에 OECD 회원국으로 도약한 것처럼 글로벌 인재의 성공적인 양성을 통해 제2의 경제 도약을 이룰 것으로 믿고 있는 송희연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초대대표를 만나 송도글로벌대학의 준비과정과 비전을 들어보고, 이를 통해 중국, 인도 경제의 고속 성장 속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의 방향을 짚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먼저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주시죠.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는 외국의 대학들 중 경쟁력 있는 학과를 단일 캠퍼스에 모아 전체적으로 종합대학으로써 모양새를 갖추는 세계 유일의 교육 모델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5, 7공구 교육연구용지 29만5,000㎡(캠퍼스 연면적 65만850㎡)에 10개 내외의 외국 대학 분교를 유치해 학생 수 2만 여명의 공동캠퍼스를 구성하는 것이 현 단계의 계획입니다.

캠퍼스 건립비의 50%를 국고 및 지방비로 보조하게 되며, 나머지 50%는 개발이익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캠퍼스 조성공사는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1단계 1공구 공사는 지난해 11월 마무리됨에 따라 학생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연구동, 기숙사, 대학도서관 등은 완공됐습니다. 강당, 체육관, 중앙도서관, 행정실, 게스트하우스 등 공동시설 공사도 금년 4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를 운영하고 관리할 재단이 설립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에 외국의 교육기관과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이에 따른 설립 지원을 하게 될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이 지난 1월 19일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재단은 정부와 인천시가 총 1조 원 가량을 투자해 건설하는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의 활성화와 함께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면서 외국 대학 유치, 외국 대학 및 연구소 지원 및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를 통한 산학연계사업, 국내 대학과의 연계 주선, 저소득층 및 농어촌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대학발전을 위한 각종 포럼과 세미나, 국제회의 주관 등의 활동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초기 출연금 25억 원에 더해 매년 100억 원씩 앞으로 5년간 총 53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교는 언제 하게 됩니까?

오는 3월이면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시대가 본격 개막됩니다. 2008년 7월 글로벌대학 캠퍼스 건설 계획이 수립된 지 3년 8개월 여 만에 닻을 올리게 되는 셈입니다.

국내에 진출하는 최초의 미국 대학인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의 한국 캠퍼스인 한국뉴욕주립대(SUNY Korea)가 3월 3일 개강식에 이어 19일에는 뉴욕주립

대 본교의 총장, 부총장, 관련 학장 및 교수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를 초청해 개교 행사를 갖고 본격 출범합니다. 이미 교직원들은 캠퍼스 내 입주를 완료했으며, 학과장 등 본교 교수 2명이 파견을 나와 개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뉴욕주립대는 컴퓨터과학과 기술경영학 등 2개 전공의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뉴욕주립대 스토니부룩의 엄선된 프로그램을 토대로 미국 교수진이 직접 파견돼 모든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고, 본교와의 교류, 글로벌 기업의 인턴쉽 기회 등을 통해 선진화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월 개교 때는 석사과정 100명, 박사과정 10명 등 총 110명 정원으로 출발하지만 점차 확대해 학부와 대학원을 합해 1,500명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뉴욕주립대와 동일한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후로 진행 중이거나 유치 계획인 대학들은 어떤 대학입니까?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설립 승인을 신청한 미국 조지메이슨대와 설립 신청을 준비 중인 벨기에 겐트대, 미국 유타대 등이 오는 2013년 개교를 앞두고 준비 중입니다.

조지메이슨대는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총 정원 1,500명 규모로 경영학, 경제학, 국제학과에 각 500명씩을 모집하게 됩니다. 조지메이슨대는 개교 초기 상황을 고려해 1학년과 4학년은 송도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2학년과 3학년은 미국 본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송도와 미국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글로벌 문화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겐트대는 2011년 세계대학평가에서 벨기에 1위, 세계 89위의 평가를 받은 유럽의 명문대학이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공학과 환경공학, 식품공학 등 3개 부문으로 정원 1,000명 규모로 분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타대도 학부와 대학원을 합해 1,000명 규모로 내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희연 대표와 장만기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설립을 확정한 대학 외에도 미국 조지아주립대 로빈슨경영대, 조지아텍, 일리노이주립대의 공대, 알프레드대, 네바다주립대 윌리엄 하라 호텔경영대, 러시아 모스크바대,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등 10여 곳의 대학과 유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유치에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외국 명문대학들이 굳이 송도까지 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 외국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우리 대학이 한국에 분교를 설립하면 무슨 이득이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크게 4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한국은 지난 45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해 아시아의 서구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아시아에는 선진국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가 풍부하다는 겁니다. 한국에 캠퍼스를 설립하면 아시아의 인적자원을 흡수할 파이프라인을 꽂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대학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흡수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한국과 2시간 비행 거리 안에는 약 7억의 인구가 있고, 3시간 반 거리 안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약 20억의 인구가 있다는 건 아주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셋째, 미국의 첨단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문화·예술산업들이 아시아시장의 마케팅 리더를 양성할 필요가 있는데,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넷째, 미국 바텔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세계 연구비 총액의 50%가 미국에 발생하고 있는데, 30년 후면 50%가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반면 미국은 20%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구비 확보 차원에서도 아시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해외 대학들도 사실 한국을 동북아지역 학생 유치를 위한 거점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역할을 하듯 송도 캠퍼스

3월 2일 개강하는 한국뉴욕주립대 본건물.

한국뉴욕주립대 내부전경.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1단계 2공구 조감도.

를 구축하면 송도 지역이 가진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 학생을 유치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뉴욕주립대가 송도를 선택한 이유도 아시아의 허브인 인천을 통해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캠퍼스에 들어오는 외국 대학들에게는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캠퍼스 시설은 초기 5년까지 무상지원하게 됩니다. 본교에서 오는 교수진을 위한 교수아파트도 5년간 무상지원입니다. 이를 두고 처음에는 호화판이다, 왜 외국 대학은 전혀 투자하지 않고 우리만 투자를 하느냐 등의 비판과 오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외국 대학은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설사 이익이 나더라도 장학금 지급과 R&D에 재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대학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외국 명문 대학의 유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두바이, 싱가포르, 중국 등 우수 외국 교육기관과의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송도가 동북아 교육허브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교육클러스터와 연계한 연구개발(R&D)센터 유치로 지식기반산업 등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소득 및 고용효과가 투자비에 비하여 대단히 크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송도글로벌대학을 준비하면서 초대학장을 역임한 인천대 동북아경제통상대학의 성공사례를 많이 참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대학이었습니까.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에 앞서 구상했던 것이 대학원대학교 설립이었습니다. 사실 개인으로는 이루기 힘든 계획이었죠. 그런데 인천대에서 제 계획을 전해 듣고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그와 비슷한 대학을 하나 설립해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한 것이 동북아경제통상대학이며, 5년간 초대학장으로 봉직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와 정부, 기업 등에서 총 23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현재 100% 장학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동북아경제통상대학은 3학기를 마치면 모든 학생들을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에서 1개의 제2외국어를 배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유학 가는 경우에는 러시아어의 습득이 어렵고 취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러시아경제 전공을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력의 희소성 때문에 4학년 초면 전원 취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제는 서로 러시아경제를 전공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동북아경제통상대학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모든 프로그램이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를 구상하면서 벤치마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의 완성된 모습을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추진 중인 캠퍼스는 학생 1만 명과 교수 500명 규모입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도 20명으로 세계적인 수준이며, 100% 기숙사 생활이 원칙입니다. 이는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외에도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설크생명과학연구소 등 선진 R&D 연구소 30개를 본격적으로 유치하

●송희연 대표

1939년 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을 거쳐 원장을 역임하면서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 외에도 해운산업연구원 원장, 산업연구원 원장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경제발전을 위한 연구에 헌신해 왔다. 인천대 국제경영대학원장과 동북아경제통상대학 초대학장을 역임하면서 글로벌 인재양성에 앞장섰다. 송도글로벌대학설립지원재단 이사장 및 현재 운영재단 초대 대표로 글로벌 대학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개발연구원 원장을 거쳐 이사장으로 있으며, 한국동북아지식연대 공동대표로도 활동했다. 최근 글로벌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나도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게 되면 학생 1만 명, 연구직 3,000 명 규모의 종합 캠퍼스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1만 명 규모의 송도글로벌대학이 성공하게 되면 약 3만 명 규모까지도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는 대학과 기업의 첨단연구소가 어우러진 지산복합체(知産複合體)로써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를 수출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등 글로벌 인재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R&D 요람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異)문화권간 휴먼 네트워크의 확산을 통해 세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이종 문화 및 이종 조직간 융합의 극대화를 통해서 지식 및 문화 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간 상호의존도의 심화를 통해 중국, 인도 경제의 충격을 흡수하는 쇼크 옵서버(Shock Absorber)의 역할을 하는 등 동서 지식·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원천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오셨는데요. 송도 캠퍼스 구상 또한 여기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주로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모방기술'에 의해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도가 급성장하면서 우리를 추격하고 있어 10~20년 후에는 우리 경제 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어요.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모방기술 주도의 경제를 원천기술 주도의 경제로 탈바꿈시키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모방기술보다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BT, IT, NT, 에너지, 환경, 항공우주)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물류, 금융, 회계, 컨벤션, 관광, 법률 등), 문화·예술기반 창조산업(미술, 디자인, 패션, 음악, 영화, 공연, 건축 등)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계의 총 R&D 재원 중에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재원이 78%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연구 과학자 6,300명 중 미국 국적이 4,100명, 영국 480명, 일본과 독일이 각각 260명인데 비해 한국에는 불과 4명밖에 없

죠. 포항공대 1명, 서울대 1명, 연세대 1명, 카이스트 1명이 전부입니다.
삼성전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LCD 시장에서 7조2,700억 원의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룹 전체로 봐도 큰 효자 역할을 한 셈이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LCD사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향후에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은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새 성장엔진을 찾아라',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이죠. 원천기술이 없으면 뭘 하더라도 곧 후발주자의 추격을 허용하게 됩니다.
'모방기술' 산업에서 '원천기술' 산업으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대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이루는 데는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커요.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가 선의의 경쟁자 역할을 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국내 주요대학을 세계 일류대학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천기술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천기술을 만들어낼 때까지 먹고 살 거리를 찾는 '신성장브릿지산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미국의 원천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첨단산업, 특히 생명공학산업을 수출산업화 해야만 21세기 전반부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는 생명공학을 기초로 하는 산업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됩니다. 한국은 미국 GDP의 7%인데 반해 생명공학분야 연구비는 1% 미만이죠. 때문에 한국의 생명공학산업을 수출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생명공학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의 미국대학 학부는 모든 과정을 영어로 이수하는 동시에 중국어와 일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도록 교육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의 생명공학산업은 세계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게 될 아시아시장으로 접근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어에 능통한 동아시아지역의 마케팅 리더가 필요하게 됩니다.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를 졸업한 한국 학생들이 미국의 일류 생명공학 분야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관련 기업 연구소에서 연구 업적을 쌓은 후, 동아시아지역 마케팅 리더로 진출하게 되면 미국회사와 더불어 아시아지역에서 새로운 생명공학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한국의 생명공학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나 문화·예술기반 창조산업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요.

인간개발연구원이 올해 창립 37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조찬세미나를 개최하며 CEO의 학습문화 조성, 전국 지자체 및 기업, 공공기관 아카데미 교육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온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지난 37년 동안 경영자와 공직자들의 평생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이만큼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은퇴 후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기간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은퇴자들 중에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은퇴 후 단순히 여가나 즐기며 인생을 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새로운 것을 보고 듣는, 지식을 생산하는 영역입니다. '배움을 즐기는' 산업이 향후 우리 사회에 성장산업으로 자리할 겁니다.
평생학습 시대에 평생교육도 '즐거운 산업'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7년간 기업인들과 공직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일깨워주고, CEO들의 조찬 학습문화를 정착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해온 인간개발연구원의 업적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입니다.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지식산업의 열차는 곧 글로벌리제이션 열차와 동일한 것인데, 이 열차를 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득 면에서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겠지요.
그런데 낭떠러지로 떨어지려는 사람을 붙잡아서 지식경제의 열차에 태워주는 것이 바로 평생교육입니다. 특히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그들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도 큰 보람이 될 것이며,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원이 평생교육의 장을 더욱 확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식산업의 열차를 타고 글로벌리제이션을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KHI

이정훈 HUMUS 대표

기업 리스크 관리, 사치인가?

조선에 사업적 혜안이 밝은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것이 큰 기회임을 깨닫고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전쟁이 나고 말았고,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다.

이 상인이 전쟁터를 어떻게 지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어떤 이는 상인이 아무런 무기나 훈련 없이 곧바로 전쟁에 참여해 군인들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어떤 이는 군인이 본업이 아닌 이상 전쟁터에 참가해서 승리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니 차라리 상인으로서 전쟁터를 유유히 지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칼과 창은 본인을 알아서 피해갈 것이라는 긍정적 사고, 또는 칼에 베어 팔 다리가 잘린다 하더라도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현실이니 세상의 이치로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기업이 간과할 수 없는 외환시장

수출입 한국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이 지나가야 할 전쟁터가 바로 외환시장이다. 어떤 기업들은 여러 금융기관의 전망과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향성에 베팅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첫 번째 상인과 같은 대응 방안이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기업들은 환율 급변에 의한 환차손으로 사업 수익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도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무 관리 방식은 환율 리스크를 100% 떠안는 공격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이 가장 '보수적' 혹은 '안정적' 대응 방안이라고 믿고 있는 현실이다. 바로 두 번째 상인과 같은 대응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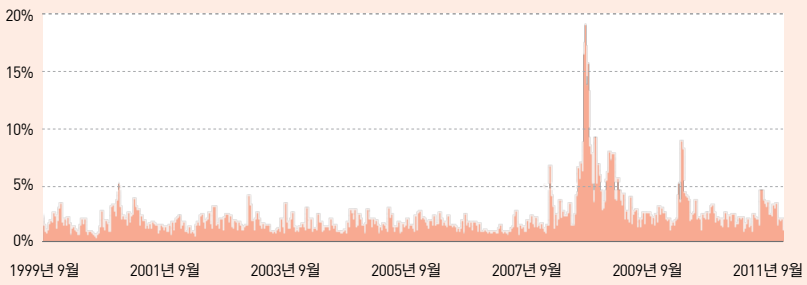


표. 주별 달러 환율 변동성

현재까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생존한 기업들이 있는 것을 보면 꼭 잘못된 방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성의 성격은 이미 과거와 많이 다르다. 아래 표는 주별 달러 환율 변동 폭으로 2008년 이후 변동 폭이 그 전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장기 생존을 위한 리스크 관리

무조건적으로 싸움을 하거나 회피하는 방식 외에 더 합리적인 방식을 알고 싶다면 전쟁터에서 지금까지 승자로 살아남은 자들의 주된 관심사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및 해지펀드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 중 하나가 리스크 관리이다. 2011년 11월 14일, 매일경제신문에 난 기사에 의하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매년 리스크 관리 비용으로 각 회사마다 대략 1,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업을 통해 발생한 외화 현금흐름이나 제조업 상품의 수출입을 통해서 발생한 외화 현금흐름이나 같은 외환시장을 통과한다. 두 업종 간의 리스크 관리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업이 관리를 하고 있다면 제조업도 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이 금융업에 비해 외환 리스크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제조업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리스크 관리에 관심이 없는 비 금융권 기업들

의 대표적인 논리는 환율 변화에 의해 손해 볼 때도 있고 이익을 볼 때도 있으니 결국 플러스마이너스를 합치면 '0'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잘 알지도 못하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기 보다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이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수학적 용어로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라고 하는데, 언뜻 들으면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에서 오는 손익을 함께 고려한다면 복리 효과와 상관관계 때문에 무관리 전략은 기업의 장기 이익 극대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 아니라 도산의 확률을 높이는 역할도 하게 된다. 즉, 체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기업은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하지 않는 기업보다 같은 사업 수익 하에서도 장기적으로 더 많은 총수익을 낼 수 있으며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무 관리 전략이 '보수적' 혹은 '안정적'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반대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없이 직관과 전망에만 의존하여 공격적 외환 베팅을 하는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상대로 외환 매매 수익을 내어보겠다는 객기와 다를 바 없다.

기업의 특성, 시장상황 고려해 관리해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란 기업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노출되는 리스크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행위이다.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보를 일관된 방법으로 가공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리스크 정책이 세워져야 하며, 이 정책의 범위 내에서 대응 전략들의 수립과 실행 방식들이 존재해야 한다.

간단한 예로 어떤 기업이 경제 위기를 포함한 과거 4~5년의 외환 누적 손익 그래프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만약 이 그래프가 꾸준히 내리막이거나 '0'을 중심으로 변동 폭이 크다면 해당 기업은 100% 외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반면에 이 그래프가 꾸준히 상승한다면 해당 기업은 어느 정도 외환 운용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100% 리스크 제거는 오히려 비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이런 간단한 정보는 리스크 시스템의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없을 때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금 당장 지난 4~5년의 외환 누적 손익 그래프를 투자은행이 보는 방식으로 그려보길 바란다.

결국 리스크 관리는 기업의 특성, 시장의 상황이 모두 고려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보수적 대응을 가정하거나 공격적인 대응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업의 선택이며, '보수적'이라고 해서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적'이라고 해서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리스크 관리가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적자 도산하는 기업을 살려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사업적으로나 재무적으로나 어느 정도 안정권에 진입하여 앞으로 5년 혹은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기업이라면 한번쯤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할 기업 활동의 한 부분이다. KHOI

● 이정훈 대표

미국 카네기멜론대에서 금융수학 석사 과정을 이수한 후 골드만삭스와 메릴린치 뉴욕 본사에서 10조원 규모의 채권발행과 30조원에 해당하는 다양한 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치평가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 HUMUS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TPT 멘토대학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유산은?

인간개발연구원은 이 시대의 리더들과 함께 돈이 아닌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갖추어진 조건이 아닌 온갖 역경을 이겨나가는 리더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진솔하게 담아내는 대화의 공간. 여러분들의 지혜나눔으로 건강한 가치들이 살아 숨쉬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TPT 멘토대학은…

인생을 통해, 경영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수하면 좋을까요? CEO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개발연구원이 보유한 명사특강 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위대한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멘토대학은 강연과 멘토링의 나눔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의 지혜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TPT 멘토대학 참여는…

- CEO(창업자 / 전문경영인)
- 공직자 및 행정전문가
- 신문, 방송 등 언론인
- 총장, 교수 등 교육계 인사
- 판검사, 의사 등 전문직업인
- 트렌드, 마케팅 전문가
- PD, 영화감독, 광고인, 방송인 등 영상예술인
- 작가, 음악가, 디자이너 등 문화예술인
- 운동선수, 산악인, 스포츠 전문가
- 기타 오피니언 리더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TPT 멘토대학 나눔사업은…

아름다운 리더들의 나눔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돈이 아닌 지혜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강연나눔

기업 · 기관 강연나눔 - 강연기부사업을 펼쳐갈 모체를 만들어주세요.

연구원의 다양한 협력기관 중 필요한 곳에 강연해주시고, 강사비를 기부약정해주시면 지혜나눔사업의 인적구성과 재단형성의 모체로 사용되어집니다.

학교 강연나눔 - 다시 학생이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진학과 취업을 뛰어넘는 인생선배로서의 조언이 학생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기부해주세요. 이미 전국 주요 지자체와 함께 중고교, 대학 등 순회강연을 개설해 미래의 리더를 키우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콘서트 강연나눔 - 위기를 창업의 기회로 만드는 마술사

풍부한 창업 노하우를 가진 분야별 CEO들의 시리즈 강의로 기업가정신을 키웁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신에게 맞는 창업 노하우를 찾아가는데 등대지기 역할을 합니다.

NGO 강연나눔 - 강연만으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NGO기관과의 강연나눔 특강 제휴사업으로 리더들의 지혜를 나누는 강연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강연 동영상서비스 - 온라인과 스마트폰에서 만나는 리더들의 아름다운 나눔문화

기부해주시는 강연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멘토링나눔

대학생 멘토링제도 - 네가 만약 헤매일 때면... 내가 멘토가 되리!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CEO들이 대학생들의 멘토가 됩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에 대학생 멘티를 기수별로 운영합니다. CEO와 함께 명사특강도 듣고, 온오프라인에서 대화의 시간도 가지며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학생 멘티들은 기수별로 활동보고서를 통해 멘토링제도의 유익함을 알립니다.

청소년 멘토링&인성교육 - 미래의 인재, 청소년들의 인생에 등불을 밝힙니다.

학교 강연나눔을 통해 만난 전국 청소년들과 멘토링을 맺습니다. 영역별 전문가들과 함께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공간나눔

기업의 회의공간을 멘토대학 장소로 기부해주세요

멘토대학은 아직 꿈을 펼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라 기부강연 때마다 장소의 제약이 있습니다. 기업의 CSR 차원에서 회의공간을 후원해주시면 멘토대학은 CSR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을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해드립니다. 추후 전용교육관 및 CEO의 서재를 운영하여 모든 사업의 구심점이 되고 지혜나눔의 랜드마크로 키우겠습니다.

멘토플라워나눔

회원사가 멘토플라워를 이용하면 수익의 10%가 멘토대학에 기부됩니다.
평소 이용하시는 꽃배달 서비스를 멘토플라워를 통해 주문해보세요. 스마트한 주문부터 도착한 모든 꽃을 도착현장 사진으로 확인해주는 화훼유통의 혁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착한 꽃 '플라워팀'과의 제휴로 기업에도 도움을 드리는 멘토플라워, 더불어 멘토대학의 재정을 돕는 일거양득의 나눔활동입니다.

나누는 사람

성명(단체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화사명 _____ **부서/직위** _____
직장전화 _____ **직장팩스** _____
핸드폰 _____ **주소** _____
이메일 _____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 인간개발연구원
T. 02-2203-3500 F. 02-2203-1974 E-mail : sy7079@naver.com

후원 및 기부나눔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아름다운 리더들,
나눔회원이 되어 주세요.**

강연나눔 회원

2012년 ☐1회 ☐2회 ☐3회의 기타(회)의 강연을 기부하겠습니다. * 강연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합니다.

멘토링나눔 회원

☐2명 ☐3명 ☐4명 ☐기타(명)의 멘토가 되겠습니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 참석하는 대학생 멘티들의 멘토로 활동합니다.

공간나눔 회원

2012년 ☐1회 ☐2회 ☐3회의 기타(회)의 강연을 기부하겠습니다.

교육장 위치 : _____
담당자 연락처 : _____

* 멘토대학의 꿈을 펼칠 공간을 기부합니다.

벽돌나눔 회원

☐1구좌 100만원 ☐2구좌 200만원 ☐3구좌 300만원 기타 (구좌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 전용교육관 설립을 위한 기부입니다.

멘토플라워나눔 회원

_____ 에서는 맨토플라워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할 것이며, 이용에 따른 적립금 10%를 멘토대학에 후원하겠습니다.

회사명 : _____
담당자 연락처 : _____

지정기부나눔 회원

CMS 자동이체 신청

매월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기타 _____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지정일

매월 ☐5일 ☐15일 ☐25일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 _____

지정기부 신청

후원계좌로 20 년 월 일까지 _____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입금처 : 국민은행 381-01-0050-244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기부금은 멘토대학 운영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로 사용됩니다.
* 인간개발연구원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입니다
*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토크

본원은 TPT 멘토대학 'NGO 강연나눔'의 일환으로 위스타트 운동본부와 함께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강연기부 프로젝트 'We대한 토크(we-talk)' 두 번째 이야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누구나 보통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통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꿈을 꿀 뿐입니다. 보통 사람 유홍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응축한 삶의 이정표와 진입로에 대한 특별한 문화유산 이야기와 보통사람 송승환이 〈난타〉에 멈추지 않고, 제2, 제3의 난타를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특별한 꿈을 나눕니다. 유홍준(3월 6일), 송승환(3월 8일)이 강연을 기부하고 보통사람들이 참여하는 이틀간의 기부 프로젝트 '위톡 두 번째 이야기'에 초대합니다.

We-talk Who?

1

유홍준
미술사학자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전임교수이며,
2004년부터 2008년 2월까지 문화재청 청장을 역임하였다.

저서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유홍준의 국보순례

유홍준
3월 6일(화) 저녁 7시

보통사람 유홍준의 미래를 향한 문화기행
(100년 뒤, 보물 1호는 무엇일까요?)

2

송승환 문화CEO
PMC프로덕션 대표

아역 성우로 데뷔하여 청춘 스타로 활동했다.
제작자로 변신한 후에는 《난타》를 총지휘하면서 1998년 한국뮤지컬대상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세계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저서 : 세계를 난타한 남자 문화CEO 송승환
창의력 소년 송승환 세상을 난타하다

송승환
3월 8일(목) 저녁 7시

보통사람 송승환의 세상을 뒤흔든 난타
(그의 꿈을 향해 내딛는 두드림을 함께 느껴볼까요?)

We-talk Where?

문화역서울 284를 아시나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만납니다.

- **주 최 :** We Start 운동본부, 인간개발연구원
- **후 원 :** 문화역서울284, 석세스TV, 봄온커뮤니케이션, 더 피알
- **문 의 :** 인간개발연구원 경영자교육팀 민선아 차장(Tel. 02-445-1948)

영화 < 완득이 >

결식학생 지원 식품을 창피하다고 학생들이 가지고 가지 않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말한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빌 게이츠

오경근 사진작가 / 자전거 건강 전도사

자전거 운동으로 건강과 젊음을 되찾는다

성취 행복감은 보너스

평생을 사진 속에서 살아오던 2005년 어느 날, 갑자기 명치끝이 꽉 조이고 숨쉬기가 힘들어 약을 먹고 병원에 가보니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급하게 서울의 한 병원에서 4시간의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8일 만에 극적으로 살아났다. 그 후 의사는 퇴원하는 필자에게 반드시 운동을 할 것을 당부했고, 친구의 적극적인 권유로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죽다가 살아난 보너스 인생을 자전거 운동으로

약 2년 후, 지인의 소개로 〈Younger Next Year〉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미국의 수많은 매스컴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책으로 46세의 미국 최고 노인학 전문의와 70세 노 변호사가 임상실험과 운동을 통해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 공동으로 집필한 책이다.

책을 접한 이후 저자의 이론대로 자전거 운동을 업그레이드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한결 같이 빼놓지 않고 자전거를 탔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몸속의 장기가 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머리가 얼어서 몸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다. 또 어느 날에는 무리한 운동으로 폐렴 직전까지 진행되어 응급구조대 119의 신세를 진 적도 있다.

이 같이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운동에 전념한 결과 수술 후 8년째 되는 지금의 나이는 72세지만 신체 나이는 40대 후반(피트니스 체력지수 평가 결과 48세)으로 '젊은 오빠'만큼의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다.

'유산소 운동은 삶의 생명을 구하고, 근력 운동은 삶의 가치를 더해준다'라고 전한 책의 내용을 직접 실행해본 결과 '갈기갈기 찢긴 몸을 꿰매고 어루만져주는 운동이 바로 자전거 운동'이라는 저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자전거 운동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72세 불구, 신체 나이는 40대 유지하는 '젊은 오빠'

필자에게 젊음을 선사한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심장박동 센서를 가슴에 두르고 모니터를 자전거 핸들 바에 장착한다. 이를 통해 센서에서 심장이 뛰는 정보를 모니터하여 운동량에 따라 정보가 수치로 기록되는 것을 판독 할 수 있다.

고급 기종은 기온, 고도, 속도, 시간, 칼로리를 비롯해 현재의 몸 상태를 읽을 수 있는 현재 심박수가 정보창에 표시된다. 심장박동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하는 운동이 몸에 득이 되는 지 해가 되는 지를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단계별 운동법이다.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을 하고 워밍업을 한 다음,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간다. 1단계는 심장을 60~65% 가동하고 1~3시간 가량의 저유산소운동을, 2단계는 심장을 70~85% 가동하고 1~2시간 고지구력운동을, 3단계는 심장을 85~100% 가동하고 1~2분 정도의 무산소운동을 하는데, 필자는 3단계 운동법을 활용하고 있다.

무산소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심장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유산소운동은 근육에 필요한 만큼 산소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인데,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근육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이 있으며, 이 엔진을 자동차 내연기관에 비유한다. 자동차는 디젤과 휘발유를 연소시키며 연기를 내고 에너지를 생산한다.

우리 인체의 미토콘드리아는 지방과 포도당을 연소시키며 무해한 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근 수축 에너지를 생산한다. 심장이 60~65%로 가동될 때 지방을 연소시키며, 우리의 몸과 뇌로 성장용 호르몬, 남성용 호르몬, 인슐린, 미토콘드리아,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혈소판유래성장인자, 내피성장인자, 종양괘사인자 등 글자 그대로 수십가지 화학 신호를 조절한다. 심장이 70% 가동되는 시점부터 추가 에너지로 포도당을 연소시키며, 80%대에는 근육에 산소 공급 부족으로 찌꺼기가 나오는데, 이 찌꺼기가 바로 젖산이다. 젖산은 우

리 몸에 해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산소운동은 심장 가동 85~100% 시점이 될 때를 말하는데, 신기한 것은 이때도 연소가 된다는 점이다. 이때 심장에서 힘차게 펌프질을 해 혈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혈관에 있는 찌꺼기가 쓸려나가 혈관이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 단, 주의할 점은 한 주에 한두 번, 한 번에 1~2분이 적당한데, 그 이상을 할 경우에는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긍정적 마인드로 다시 사는 건강인생

자전거 운동을 하기 전 필자는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60대 노인이었다. 그러나 자전거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는 이 운동법으로 혈당을 조절해 인슐린은 물론 다른 약을 먹지 않는데도 식후 혈당은 120mg/dl을 유지할 정도로 건강해졌다.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있거나 등산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그야말로 '몸짱'이 된 것이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그럴 때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는 것'에 감사하고 다시 일어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마라톤에서 30분 이상 달리면 얻어지는 성취감과 행복감을 '러너스 하이(runners high)'라고 한다. 자전거를 타면 바로 이 '러너스 하이'를 쉽게 맛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전거 운동으로 제2의 삶을 찾은 필자는 자전거 타기 운동의 생활화를 전 국민에게 전하는 강연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삶을 통해 국민 의료비 절감을 통한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는 게 목표이다. 또 고령자의 자전거 타기 운동이 확산되면 건강한 노인문화 조성으로 사회적 비용의 감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감소, 노인복지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는 이미 오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국민들, 특히 고령자들이 자전거 운동을 통해 건강과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KHD

오경근 원장이 전하는 '자전거 잘 타기 위한 10계명'

① **안장 높이를 적절히 유지하자 -** 안장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다. 발뒤꿈치로 페달을 밟았을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질 정도로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② **정지 시에는 안장에서 엉덩이를 내리자 -** 안장에 계속 앉아 있으려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핸들과 안장 사이의 탑튜브 위쪽으로 엉덩이를 내리고 한 발을 땅에 짚어야 안전하다.

③ **핸들은 가볍게 잡고 팔꿈치를 구부리자 -** 팔을 너무 직선으로 뻗어서 핸들을 잡으면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손잡이를 가볍게 잡고 안쪽으로 빨래를 짜듯이 비틀어 주면 된다.

④ **페달을 밟는 발은 평행이 되게 하자 -** 두 발이 11자가 되도록 평행을 유지하자. 신체의 무게중심을 다리 쪽에 70%, 엉덩이 쪽에 30% 분산시키면 좋은 운동효과를 볼 수 있다.

⑤ **우측으로 붙어서 달리자 -** 보통 속도로 달릴 때는 우측 차선에서 40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이나 여럿이 갈 때도 나란히 가지 말고 한 줄로 달려야 한다.

⑥ **전후와 좌우를 살핀 다음 추월하자 -** 추월하려고 속도를 높일 때 무작정 핸들을 틀면 위험하다. 경적을 가볍게 울려서 앞선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다.

⑦ **200m 전방과 발밑을 교대로 살피자 -** 혼자서 아무리 조심해도 주변 상황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 전방의 사고를 보지 못하고 빠르게 달리다 부상을 당하는 것을 피하자.

⑧ **턱이 진 곳은 가능하면 피하자 -**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울 경우에는 흰 페인트를 덧칠한 중앙선의 작은 턱도 위험하다. 중앙선과 인도 등의 턱은 평행보다 직각으로 넘는 게 좋다.

⑨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리자 -**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시내도로에서는 몇 배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자.

⑩ **자전거도 쉬게 하자 -** 자전거 타기를 끝내고 보관할 때 앞뒤 기어를 풀어주면 밀고 당기는 힘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눕힐 때는 핸들과 페달만 땅에 닿도록 해야 한다.

● **오경근 사진작가**

1941년 생으로 50년 넘게 사진 인생 외길을 걸어온 사진계 원로작가다. 11회의 개인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프로인상사진 초대작가이자 협회 연구이사, 교육이사, 교육연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자전거 건강 전도사'로 전 국민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파하는 등 제2의 인생을 맞고 있다.

[회원 소식]

■ **김영대 대성 회장**은 지난 12월 29일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명예 영사관 문장(紋章)을 수여받았다. 대성은 명예 영사관 문장을 신도림 디큐브시티에 전시하고 있다.

■ **박태호 전 서울대 원장**은 지난 1월 2일 외교통상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하여 4일 오전 임진년 첫 위기관리대책 회의에 참석하였다

■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이 제21회 다산금융상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1월 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어 회장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21회를 맞이한 '다산금융상'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공이 큰 금융인과 금융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금융관련 상이다.

■ **예성화랑(대표 한영희)**은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화가 세르지 멘지스키 展을 기획 전시하였다. 멘지스키는 자신의 다차원적인 비전을 표현하기 위해 꼴라지(collage)기법을 활용하여 그만의 개성있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는 세계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2011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7년 연속 `세계 최고공항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1월 14일 ACI 발표 직후 이 사장은 앞으로 세계 공항은 매년 5% 이상 성장해 무한경쟁이 가속될 것을 예상하여 공항시설 확장, 해외공항사업 확대, 공항 주변 개발 등 `3-Way` 전략을 차기 모멘텀 동력으로 명실상부한 아시아허브 공항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쁘띠프랑스(회장 한홍섭)**는 겨울방학을 맞아 프랑스 미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프랑스 미술 작품 체험전'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개최하였다. 프랑스 문화원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체험전에서는 프랑스 건축미술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프랑스의 현대화가 따라잡기에서는 피카소, 샤갈, 미로 등의 유작들에 대한 설명과 작품에 대한 설명이 쓰여진 종이에 작품들을 직접 그려보는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은** 지난 1월 18일 설을 맞아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사랑의 식품꾸러미' 행사를 가졌다. 은행측은 "식품꾸러미는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다문화가정 등에 전달된다"고 밝혔다.

■ **홍기준 한화케미칼 부회장은** 지난 1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국제경쟁력 포럼(GCF)에 참가하여 '사내 기업가 정신'에 대해 연설하였다.

■ **이영관 (주)도레이첨단소재 사장**은 지난 1월 30일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MBA 교우회 정기총회에서 제32대 교우회장에 선출되었다.

■ 롯데호텔은 지난 2월 3일 2012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송용덕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하였다. 2008년 호텔롯데 마케팅부문 본부장을 지낸 송 신임 대표는 지난해 롯데루스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이번 인사를 통해 호텔롯데 대표이사직과 부산롯데호텔의 대표이사직을 겸하게 된다. 한편 **좌상봉** 전 대표이사는 중국 **낙천기업관리유한공사 총경리 부사장**으로 내정되었다.

■ **정갑영 연세대 교수**는 지난 2월 7일 **제17대 연세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정 총장은 송도 국제캠퍼스 개교와 더불어 글로벌 연세의 새 미래를 여는 '제3의 창학'을 맞이하여 신촌과 의료원, 원주, 국제캠퍼스 등이 자율과 융합을 기반으로 최고 경쟁력을 갖추는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을 예측하고자 지난 2월 15일부터 17까지 3일간, "격변하는 세계경제! 우리의 갈 길은?"이라는 주제로 조선호텔에서 제35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 **박용팔 전능IT(주) 회장**은 지난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4일간 개최된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에 참가하여 국내외 의료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의 우수한 의료기기 및 병원 설비를 전시 소개하여 국민 보건향상과 의학발전은 물론 의료시설의 개선을 통한 병원 설비의 현대화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 **김창송 성원교역 회장**은 (사)대한중재인협회에서 선정한 2012년도 제3회 '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2월 20일 삼성동 오크우드호텔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김 회장은 20여년간 국제무역분쟁 과정에서 중재인으로서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위원의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 **임충식 전 중소기업청 차장**은 지난 2월 20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임 회장은 서울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 차장 등을 역임하였다.

■ **한덕수 전 주미대사**가 **한국무역협회 제28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를 통해 한덕수 대사를 제28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한 신임 회장은 무역업계가 활동할 수 있는 넓은 시장을 확보해 나가야하며 이를 위해서 FTA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 **홍승국 에버그린엠에스티(주) 대표이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국제 판촉물 · 선물전시회(SIPREMIUM)에 참여하였다. 본 전시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판촉물 및 생활용품 전시회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후원하고, 약 400개사 600부스 2만여 명의 바이어가 참석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판촉물 · 선물 전시회이다.

■ **오연석 더벤처캐피탈 대표이사**는 2월 말일자로 더벤처캐피탈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하여 후학양성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3월 초에 첫 첫 저서인〈행복부자학 -미래를 위해 당신 인생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라(청아 출판사)를 출간할 예정이다.

■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3월 2일 사업구조 개편 후 새로운 출범을 위한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에서 농업중앙회 전무이사에 윤종일 현 농업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장이 선임되었으며, 농업경제 대표에는 김수공 상무, 상호금융 대표에는 최종현 상무, 조합감사위원장에는 이부근 상호금융총본부장이 각각 임명되었다.

■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은 "대한민국을 빛내주세요"라는 제목의 노래를 작사하였다. 이 노랫말에는 나라일꾼이 되려면 청렴하고 정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 나라를 빛내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공 사장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2년 전 준비한 노래를 이번에 완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 **유한킴벌리(대표 최규복)**가 유기농 화장품 '베베 드 포레'를 출시하였다. 프랑스어로 '숲 속의 아기'를 뜻하는 '베베 드 포레'는 독자 개발한 '프렌치 에코버드 성분'을 함유해 외부환경으로부터 자극받은 아기 피부에 뛰어난 진정 및 보습효과를 제공한다. 회사 측은 800억 원대의 영·유아 스킨 시장에서 유기농제품 점유율이 5% 남짓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번 제품 출시를 통해 영·유아 스킨케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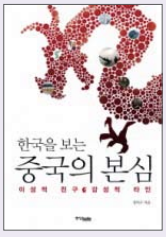
■ **조인스HR(대표이사 가재산 · 양병만)**은 성과주의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급여전문가 양성과정 10기를 개최한다. 본 과정은 급여관리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담당자의 실무지식 강화와 인사 노무분야에 이르는 배경 이해로 '급여전문가'로서 담당자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과정이다.

- **일시 :** 2012년 3월 13일(화) ~ 14일(수) 10:00~18: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4 (4F)
- **문의 :** Tel. 02-890-0815, 0848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박봉규 대성에너지 사장**은 조선 건국 일등공신인 정도전의 삶과 사상을 소재로 한 〈조선 최고의 사상범 정도전〉을 출간하였다. 박 사장은 책에서 정도전을 '백성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마르크스보다 더 혁명적이며, 마키아벨리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조선을 만들어갔던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 **백정선 TNV어드바이저 대표이사**는 최근 〈부채는 줄이고 행복 자산은 늘려라〉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빚으로 인한 경제적 고충을 줄이기 위해 가계지출을 구조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중국인'의 속내를, '제대로' 아는 게 시급함을 고민하여 최근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정 이사장이 2003년 가을학기 베이징대 초빙교수를 지낸 것을 계기로 8년 가까이 보고 공부한 중국을 105개 분야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물이다.



■ **양병무 재능교육 사장**은 신간 〈일생에 한 권 책을 써라〉를 출간하였다. '양병무의 행복한 글쓰기 특강'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영향력 있는 글쓰기와 책쓰기가 최고의 자기계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글을 쓰고 싶다는 꿈만 있으면 누구나 책을 펴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모임 소식]

■ **Young CEO Forum(회장 황광석 / 총무 안정욱)**은 2월 16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우리투자증권 사무실에서 정지환 감사나눔편집국장을 초청해 신간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레시피〉 출간을 축하하고 저자의 변을 들어보는 모임을 가졌다. 이번 3월 모임은 테너 이요한의 해설이 있는 클래식이야기라는 시간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일정 :** 2012년 3월 15일(목)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 갤러리 에뽀끄(T. 02-747-2075)
- **문의 :** 총무 안정욱(H.P. 010-5756-2759)

■ **화목회 새임원진 선출**

화목회는 지난 1월 17일 명동로얄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신년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정기총회를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화목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단을 선출했으며, 신임 회장단은 아래와 같다.

- **회장** – 황석희 전 인천공항공사 의장 (유임)
- **수석 부회장** – 이재옥 중앙에프앤에스㈜ 사장
- **부회장** – 홍승국 에버그린MST(주) 사장
- **사무총장(총무)** – 임종렬 갤러리 숲 대표
- **감사** – 양종관 남서울대학교 교수 (유임)

■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이윤수 / 고지석)**은 2월 27일 교대에 위치한 '설국'에서 제295차 모임을 갖고 회원 상호간 소식을 전하는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 **책 · 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회장 박춘봉 / 총무 정지환)**은 2월 13일 '손광성의 수필쓰기' 수업을 진행한데 이어 3월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한편 에세이클럽은 관심있는 회원들의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

- **일시 :** 2012년 3월 12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 문학의 집·서울
- **문의 :** 정용달 팀장 (Tel. 02-445-1949)

■ **다락회(회장 정태익 / 총무 이종원)**는 3월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일시 :** 2012년 3월 27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 그래드인터컨티낸탈호텔 1층 그랑카페
- **참석여부 :** 총무 이종원 (H.P. 010-5306-8587)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회사명	이름/직함	창립기념일
대주회계법인	백진환 공인회계사	3월 1일
성원교역(주)	김창송 회장	3월 1일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	정창현 사장	3월 3일
SM컨설팅	유혜선 대표	3월 3일
한마음특허사무소	구교근 소장	3월 5일
중앙에프앤에스(주)	이재옥 대표이사	3월 15일
협운해운(주)	마상곤 회장	3월 19일
유진기업(주)	유재필 회장	3월 22일
(주)일삼	정우철 사장	3월 25일
정경연 이안 한의원	정경연 원장	4월 1일
서창전기	윤계웅 회장	4월 1일
서린바이오사이언스	황을문 대표이사사장	4월 2일
제천정신병원	오만식 이사장	4월 6일
(주)한국크리버	남재현 회장	4월 8일
(주)듀오	이충희 사장	4월 10일
(주)도드람B&F	김대성 고문	4월 17일
(주)지케이이십일	배승호 회장	4월 17일
전능IT(주)	박용팔 회장	4월 19일
영동농장	김용복 회장	4월 20일

[연구원 소식]

■ 작품 기증

임종렬 갤러리숲 대표는 본원 창립 37주년을 맞이하여 2월 2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기념포럼에 앞서 작품을 본원에 기증하였다.

■ 정지환 편집위원 신간 출간

매주 개최되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강연을 취재해 강연후기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선물해 온 정지환 편집위원(감사나눔신문 편집국장)이 신간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 레시피〉 (북카라반)를 출간하였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문의** : 북카라반 편집부 이동국 010-9414-0259

■ 본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포럼' 업무협약

본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공식 후원기관으로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주포럼은 2001년 '제주평화포럼'으로 출발하여 격년으로 개최되었으며, 지난 10년간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크게 이바지하는 아시아 대표 매머드급 포럼으로 성장했다. 작년 포럼에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성황에 이어 올해는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5월 31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 **일시** : 2012년 5월 31일(목) ~ 6월 2일(토)
- **장소** : 제주도 해비치 호텔 & 리조트(잠정)
- **문의** : 장소영 실장(Tel.070-8670-8435)

■ 2012 소통아카데미 개강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구)와 본원이 사회 구성원간 활발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마련한 '2010 소통아카데미 1기'가 3월 7일 대학로 방송대 스튜디오에서 개강한다. 1기에는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서진규 희망연구소 소장, 신상훈 방송작가가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 **일정**

  1기 : 3월 7일(수) ~ 3월 21일(수) **2기** : 4월 25일(수) ~ 5월 9일(수)

  3기 : 6월 13일(수) ~ 6월 27일(수) 매주 수요일 19:30~21:30
-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DMC 4층 스튜디오
- **대상** : 일반시민 200명
- **문의** : 정용달 팀장 T. 02-445-1949

■ 최강의 세일즈 戰士를 만드는 손자병법 영업마케팅 사관학교 개강

본원은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강의 세일즈 전사를 만들기 위한 손자병법 영업마케팅 사관학교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손자병법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과 인간처세술을 영업마케팅에 녹여내실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만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기업을 대표하는 최강의 세일즈 전사를 육성하셔서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발전모델을 제시한다.

- **일정** : 3월 13일(화) ~ 4월 3일(화). 14:00-21:00 4주 과정, 매주 화요일, 석식 1시간)
- **장소** : 페럼타워 2층 중회의실(을지로입구역, 3~4번 출구
- **수강료** : 인간개발연구원 정회원 70만원, 비회원 90만원
- **신청** : 장소영 실장(Tel.070-8670-8435)

Welcom to KHDI

■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법인회원)**

장태평 회장은 행시 20회로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등에서 재정과 세제 업무를 주로 담당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2008년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해 2년간 장관직을 역임하였다. 농민들에게 경영 마인드를 전파하고 농업의 경영화에 기여하여 농업 리더 육성에 힘쓰고자 지난 2011년 11월 마사회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말 산업 발전과 공기업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최고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번지
- **전화번호** : 02-509-1000
- **홈페이지** : http://www.mifaff.go.kr

■ **김국종 남촌레저개발(주) 사장(개인회원)**

안양베네스트GC, 서원밸리GC, 나인브릿지CC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 통해 고향 같은 골프장을 계획하여 경기도 곤지암 지역에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코스를 자랑하는 18홀 규모의 국제규격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이선리 510번지
- **전화** : 031-769-0333
- **홈페이지** : www.namchoncc.co.kr

■ **정석주 (주)양지실업 회장(개인회원)**

제1593회 경영자연구회에서 강연한 바 있는 양지실업 창업자인 정석주 회장은 30년간 한 번도 급여날짜를 어긴 적이 없고, 적자, 부채, 노사분규, 어음거래, 클레임이 없는 '6無의 경영'을 실천하였으며, 성공적인 수출형 중소기업의 모델을 이룩한바 있다.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73번지 삼익빌라 302호
- **전화번호** : 02-862-4949

■ **이상춘 ㈜에스씨엘 회장(개인회원)**

에스시엘은 1977년 창사 이래 30년을 한결 같이 기계 요소품(축체결) 생산에 주력해온 전문업체이다. 일본 OCHIAI사와 기술제휴 및 협력으로 설비자동화와 기술향상에 전념하는 한편 최고의 품질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제품을 생산 개발하고 있다.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0번지 오모스빌딩 5층
- **전화번호** : 032-675-2710
- **홈페이지** : http://iscl.co.kr

■ **성자은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상무(개인회원)**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는 20여 개의 생손보사 및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회사별, 상품별로 보장내용, 사업비, 투자수익률, 상품기획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금융컨설팅을 제공하는 금융상품판매전문 회사이다.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3-40 현대스위스타워 15층
- **전화번호** : 02-2088-0928
- **홈페이지** : http://www.aplusassetadvisor.com

■ **심재용 태성회계법인 이사(개인회원)**

태성회계법인은 경영에 대한 전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으로서 창업컨설팅, 회계감사, 기업진단, 세무진단 및 불복, 외국계기업컨설팅, 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제공한다.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6-2 C&K타워 5층
- **전화번호** : 02-561-6510
- **홈페이지** : http://www.tsacc.co.kr

■ **이미숙 ㈜요한여행사 대표이사(개인회원)**

고품격 여행을 추구하는 요한여행사는 기존의 획일화된 여행패턴에서 벗어나 알차면서도 실속 있는 관광 및 여행을 고객에게 디자인해주고 있다.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63번지 광화문오피시아빌딩 914호
- **전화번호** : 02-722-8875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사랑의 멘토십이 필요한 한국사회

5년 전 중국 길림대학에서 교수와 학부생 500여 명에게 "중국의 미래와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한 적이 있다. 13억 인구의 중국이 2015년이 되기 전에 미국을 추월해 G1 또는 G2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예측이고, 강연자인 필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13억 인구의 힘, 광활한 국토와 자원, 강력한 사회주의 정치 리더십, 시장개방의 힘, 선진국의 투자에 의한 생산에만 의존해서는 진정한 경제대국이 되기 어렵고, 소득 2000불 미만의 가난한 중국 국민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비전,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결심과 열정으로 마음속의 무한한 가능성을 불태울 때 마침내 중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고, 개인의 꿈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멘토링했다.

그러나 거대해진 중국이 경제적인 국력으로 세계의 패권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를 도와 세계평화와 함께 잘 사는 번영, 그리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 경제의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인류의 미래는 인간에 달려있고, 인간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는 신념으로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업가 정신과 CEO들의 리더십 개발에 역점을 두고 1975년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속해오고 있음을 밝히고, 그 결과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이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서 중국경제의 성장에도 크게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필자 역시 어린 시절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도 꿈을 갖고 노력한 끝에 대학교수가 됐고, 중국에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할 기회도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과거 회상의 진심어린 마음을 보여주어 박수갈채를 받은 기억이 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다음해 길림대학 창립 60주년에 특별 초청받은 자리에서 고문교수직을 제의받아 5년간 고문교수직의 명예를 누려왔다. 최근 탈북자 강제 북송문제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남북문제로 한중관계가 위기 국면에 처한 것을 생각하니 지난날 길림대학에서의 강연이 새롭게 떠오른다.

2012년은 전 세계가 극복하기 어려운 재난과도 같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고를 한 바 있지만 세계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재난에 가까운 위기국면이 감지되고 있다.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을 앞두고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격랑에 쌓인 한반도의 지도자들이 되겠다는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정국에서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남북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고, 악화되고 있는 우리의 교육환경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의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을 미래의 빚쟁이로 만들고 있고,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곳 없는 젊은 세대들은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아무 준비없이 직장에서 밀려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모습은 쓸쓸하다 못해 가련하기 그지없다. 국력과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다.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절실히 요구되는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 레임덕 현상으로 흔들리고 있음도 불안 요소다. 1%의 부자들을 질타하는 99%의 분노가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내뿜는 포퓰리즘적 복지 공략도 국가경제의 앞날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모든 위기는 사람들에 의한 재난의 위기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책일까?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Better People Better World 캠페인을 전개하며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 평화운동, 인간의 잠재역량에 중점을 두고 모두가 함께 누릴 잘 살기 운동, 마음에 핵심을 둔 인간의 행복 추구 등 우리 인간개발연구원은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지방자치아카데미, 군선진화아카데미, 소통아카데미, 위스타트운동본부와의 재능기부 강연,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제주평화포럼 협력, 그리고 CEO 회원과 강사들이 중심이 될 멘토대학, 멘토링서비스 등 다양한 인간개발 프로그램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특히 TPT(Total People Technology, 참사람을 살리는 지혜의 인간학)를 핵심으로 한 멘토링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가 그의 책 〈길〉에서 주창한 인간에 대한 사랑, '오직 사랑하라'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사람은 누구나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을 받으려면 진심어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 결핍된 사회가 오늘의 병든 한국사회이다. 사랑의 결핍은 사랑으로써만 치유가 가능하다. KHDI

2012년 아카데미 3월부터 본궤도 올라

전국 각 기관별 업무협약 마치고 순항 준비 끝!

〈교육컨설팅 소식〉

■ **2012년도 업무협약 이어지는 가운데 3월부터 교육 본궤도 올라**

새로운 교육의 한 자락이 시작되는 입학식과 더불어 배움의 대표되는 학교들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이미 그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2012년 3월 현재 경주시, 상주시, 울산시를 비롯하여 함안군, 무안군, 양양군과 서울 강서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등 20여개 기관과 계약을 완료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교육의 서막을 올린 지 오래다.

2012년도 첫 강연의 주인공은 함안군이었다. 지난 1월 4일 함안군청에서는 국내 최고의 금연 전도사 박재갑 서울대 교수를 모시고 '암, 극복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첫 포문을 열었다. 바로 다음날 장성군에서는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을 모시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발전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월 19일 상주시에서는 서울백병원의 강재헌 박사를 모시고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100세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통해 동맥경화, 당뇨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전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1월 26일 무안군에서는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을 모시고 '생명산업의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2월 8일 경주시에서는 경주시장 이하 공직자들이 주민과 함께 한 가운데, 경주 발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지방자치아카데미 17년 역사상 최초로 진행한 시민참여토론회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2월 23일 부여군에서는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을 모시고 한미FTA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각 기관과 2012년도 업무협약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사업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 **창의적인 군 조직 만들기 위한 학습체계 구축하는 병영선진 아카데미**

육군본부와 공군본부, 공군교육사령부가 주최하고 본원이 주관하는 '선진육군아카데미'와 '공군하늘사랑아카데미'가 지난 1~2월에 걸쳐

총 4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강연은 군 안보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New America Media 기자 출신으로 〈영웅 김영옥〉의 저자인 한우성 작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윤은기 원장,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 윤용남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강연에 나서 군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본원은 병영선진 아카데미 6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군 간부들에게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와 트렌드를 인식하고 창의 추진 마인드를 일깨워 보다 창조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갖추는 군 조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평생학습조직 구축으로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정기교육**

'평생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조직발전 기여'를 목표로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교육사업이 2012년에도 각 기관들의 큰 기대 속에 막을 올렸다. 지난 1~2월 주요 강연으로는 대웅제약 경남지역본부특강에 허구연 야구해설위원이 '프로정신이 1등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해줬고, 홈플러스 그룹 자문단회의 신년특강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 2012년 한 해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해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진해운 직원특강에는 영어MC 및 방송인으로 유명한 박현영 지니뱅크 대표가 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다. 리바트 특강에는 노병천 한국전략리더십연구원장이 본사와 서울사무소에서 이순신리더십에 대해 강의했고, 원장은 YPP를 찾아 설득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전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컨설팅기관 소식〉

■ **사회통합위원회 송석구 위원장, 정진석 추기경 및 자승 총무원장 예방**

송석구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3일 정진석 천주교 추기경을 예방한데 이어 8일에는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했다. 정진석 추기경은 송 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단순 복지는 의미가 없다"고 전제하고, "국민들이 보람있게 살 수

있는 복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가 국민들에게 보람을 안겨줘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승 총무원장은 송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불교는 모두가 평화롭게 살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밝히고, "섬김의 운동을 위해 모든 문호를 개방하고,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천일기도도 함께 시작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승 원장은 이 자리에서 용산 사태 구속자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송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번 예방은 지난해에 이어 송 위원장이 연임을 하게 됨에 따라 종단 지도자들에 대한 인사차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각계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 JDC, 창립 10주년 맞아 제2창업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변정일)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양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2012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JDC는 지난해 NLCS Jeju 국제학교의 성공 개교, 휴양형주거단지 부지조성공사 완료, 첨단과학기술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율 95% 달성, 면세점 매출 신장, 녹색경영시스템(GSM) 인증 획득 등 다양한 성과를 올렸으며, 헬스케어타운과 신화역사공업 사업에 국내외 유력 투자자와의 투자협약 체결로 투자구도가 구체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JDC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교육, 의료, 첨단 등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평창군, 스포츠·레저 브랜드대상 지자체 부문 대상

평창군(군수 이석래)은 2월 22일 '스포츠·레저 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스포츠·레저 브랜드대상은 대한민국 스포츠·레저산업발전에 공이 큰 브랜드를 선정 포상하고,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포츠·레저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시상제도이다. 이석래 군수는 "이번 수상의 영광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돌린다"며 "동계스포츠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주시, 동부사적지 꽃단지 조성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동부사적지 일원 42만㎡의 유휴지에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한다. 3월부터 꽃단지 조성을 시작해 4월 초부터 개화하는 유채꽃을 시작으로 코스모스, 연꽃, 야생화, 꽃동산, 생태터널, 꽃길과 메밀, 조, 수수 등의 관상용 식물단지 등 계절별로 다양하게 꽃을 볼 수 있는 대단위 꽃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경주시는 "꽃단지와 연계해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지는 공연 축제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보는 즐거움과 듣는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양양군, '귀농 귀촌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진행

양양군(군수 정상철)은 귀농 귀촌 이주 정착 성공 지원 프로그램인 '귀농 귀촌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양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 비전과 과제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이주를 이끌어 내고, 향후 귀농 귀촌의 인적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양양군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월군, 영화 '라디오스타' 촬영지에 '라디오거리' 조성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2012년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공모결과 '(구)KBS 영월방송국 리모델링을 통한 라디오거리 조성' 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비 16억 원을 지원받아 본 사업을 시행한다.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시지역의 고유한 자원, 관광거점 등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도시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고,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공모한 사업으로 전국에서 5개소를 선정했으며, 강원도에서는 영월지역이 선정되었다.

CLA
Christian Leaders Academy

Christian Leaders Academy

4th Christian Leaders Academy

크리스천 CEO,
서번트 리더십으로 세상을 바꾸다

"크리스천 리더들이 깨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는 21세기 경영계의 화두인
예수의 섬김 리더십을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 37년간 CEO들의 새벽을 깨워 온 인간개발연구원의 교육시스템과
강사진, 그리고 한국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갖고 있는 CBS가
국내 최고의 고위경영자과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 만 기** CBS사장 **이 재 천**

Christian Leaders Academy Speakers

강우현
남이섬 사장

김문훈
포도원교회 담임목사

김창옥
퍼포먼스트레이닝 소장

김하중
前통일부 장관

노병천
한국전략리더십연구원 원장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CO) 위원

박종원
코리안리재보험 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송길원
하이패밀리 대표

신갈렙
열방네트워 대표

오평호
연세대 신학대학 객원교수

유석성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윤영섭
고려대 부총장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이인용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이장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철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갑영
연세대 총장

조정민
온누리교회 목사

진재혁
지구촌교회 목사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

Christian Leaders Academy 교육일정

- **교육기간** : 2012.4. 24(화) ~ 2012. 8. 7(화) (16주 과정, 봉사활동 3회)
- **교육장소** : 서울팔래스호텔 12층 스카이볼룸 (반포동)
- **주 최** : CBS, 인간개발연구원
- **모집대상** : 크리스천 CEO, 오피니언 리더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901-588813 / 예금주 : (재)CBS
- **교육문의** : 장소영 실장 TEL:070-8670-8435 E-mail:sy7079@naver.com
- **참가신청** : 서봉석 팀장 TEL:070-8670-8431 E-mail:khdi75@naver.com
- **홈페이지** : http://www.cla.or.kr

CBS 기독교방송 · CBS TV

KHDI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

2012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

CEO의 스피치는 직원, 고객 그리고 투자자를 움직이게 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감동과 설득력 있는 스피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미디어 시대에 맞춰 경영진은 언론매체 대응 커뮤니케이션 역량 증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CEO들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관리할 때입니다.

CEO 및 경영진을 위한 미디어 스피치 과정!

본원은 올해에도 아나운서 전문 양성기관인 봄온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CEO 및 경영진을 위한 미디어 스피치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과정은 '담임 강사진'을 두어 첫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해드립니다. 개인과 기업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 리더로서의 영향력과 삶의 새로운 전환점의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만기
봄온 커뮤니케이션 성연미

일시

2012년 4월 2일~23일 오후 6시 30분~9시 30분(매주 월, 5회과정)
2012년 4월 4일~25일 오후 6시 30분~9시 30분(매주 수, 5회과정)

장소

봄온 커뮤니케이션(강남점)

대상

각 10명(기업의 CEO 및 임원, 그리고 전문직업인)

특징

- 스피치 문제점을 찾아 교정해드리는 1:1 맞춤형 최고위 과정
- 말 잘 하는 리더가 아닌 잘 말하는 리더로 향상 기회 마련
- 대중연설, 회의, 토론, 인터뷰, 협상, 직원과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 매 강의시 동영상 녹화 실습과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제공

교육비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180만원 / 예비회원 200만원 * 부가세면제

진행순서

①주제강연 ②방송실습녹화
③녹화영상 모니터링 및 피드백

문의

인간개발연구원 민선아 차장 T.02-445-1948

교육커리큘럼

일정	내용
1회차	Step1. 미디어스 피치의 이해 1부-미디어 스피치의 이론과 실습(1시간) 2부- '지금은 미디어 스피치의 시대' 녹화 모니터링(2시간)
2회차	Step2. 효과적 음성표현과 CEO의 교양 스피치 1부-음성표현 이론. 교양 스피치 이론과 실습(1시간) 2부- 'CEO의 삶과 경영' 녹화 및 모니터링(2시간)
3회차	Step3. 기업과 경영의 윤활유. 유머스피치 1부-유머스피치, 이론과 실습(1시간) 2부- '유머로 경영하라' 녹화 모니터링(2시간)
4회차	Step4. 공식석상의 위기대처와 시사스피치 1부-미디어 위기대처 및 시사스피치(1시간) 2부- 'CEO 시사토론' 녹화 모니터링(2시간)
5회차	Step5. 가족과 직원에게 전하는 감동과 설득 스피치 1부-상대를 움직이는 감동과 설득이론(1시간) 2부-사랑하는 직원과 가족에게 전하는 영상메시지 녹화 모니터링(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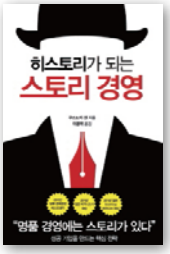
Book & Culture

관점 다르게 보는 힘

최윤규 / 고즈원 / 288쪽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발상의 전환!

이 책은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며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의 눈, 변화를 꿰뚫는 통찰의 눈, 통념을 뛰어넘는 혁신의 눈을 키워준다. 똑같은 사물이라도 다르게 보고 창의적으로 보는 관점을 기르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망설이지 않고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본문은 철저히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발주자이지만 소비자들에게 쉽게 각인되는 제목을 지어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른 애경의 하나로 샴푸, 남성운전자의 심리를 이용해 매출을 두 배 이상 올린 주유소, 소금이 잘 팔리지 않아 죽염으로 된장을 만들어 선물하다 죽염된장 사업가가 된 사람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무엇이 먼저인지, 어떤 것에 인생을 걸어야 할지 막막해질 때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히스토리가 되는 스토리 경영

구스노키 겐 / 이용택 / 자음과모음 / 479쪽

세계 경제 불안, 스토리로 돌파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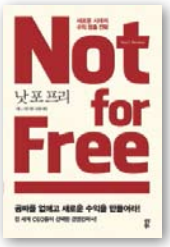
블루오션을 창조해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스토리'로 경영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하는 이 책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 스토리가 경영 전략의 진수라고 강조한다. 이에 스타벅스의 '직영 방식',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허브 공항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 아마존의 '거대 물류 센터' 등의 사례를 들어 경영 전략을 스토리로 세우는 방법과 필수 요소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내 편이 아니라도 적을 만들지 마라

스샤오옌 / 양성희 역 / 다연 / 303쪽

눈으로라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마라!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루에 한 가지 인생철학을 배우다〉, 〈논어의 지혜〉 등 다수의 저작을 집필한 저자 스샤오옌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를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충고부터 삶에서 배우는 인간관계의 진실, 때와 장소를 가려 타인을 대하는 훌륭한 태도,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지혜, 바른 의지를 위한 마음가짐 등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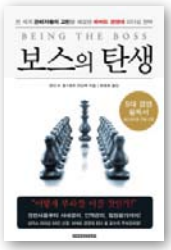


Not for Free(낫 포 프리)

사울 J. 버먼 / 김성순 역 / 다산북스 / 270쪽

어떻게 하면 고객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

25년 이상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컨설팅을 도맡아 온 사울 J. 버먼이 기업이 가장 빠른 기간 안에 수익구조를 바꾸고,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책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가격과 지불 방법, 패키지 방법을 혁신함으로써 기업이 비약적으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세 가지 수익모델 혁신 방법을 제시한다. 더불어 미디어콘텐츠 기업들이 그동안 어떻게 가격파괴에 맞서 수익모델의 다변화를 실험해왔는지를 보여주며, 실패사례와 성공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준다.



보스의 탄생

린다 A. 힐, 켄트 라인백 / 방영호 역 / SEEDPAPER / 383쪽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사 공부'가 필요하다!

하버드 경영대 교수이자 하버드 리더십 이니셔티브의 의장으로 활동 중인 린다 힐과 스털링 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조직에서 오랜 기간 리더십 전략을 연구해온 켄트 라인백이 조직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 부하직원을 관리하기에 앞서 관리자인 자신의 영향력을 관리하라고 당부하는 저자들은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을 때의 부작용 사례를 전하며 권한을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세세히 조언한다. 이어 인맥관리의 중요성을 전하면서, 사내 정치를 통한 영향력 행사 역시 관리자의 책무라 보고 이를 위한 인맥 관리의 중요성과 기술을 안내한다.

부의 진실

팀 샌더스 / 권혜아 역 / 비전코리아 / 286쪽

지금 당신 안의 성공을 만나라!

마음부자들의 7가지 성공 원칙을 다룬 이 책은 베스트셀러 〈사랑은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저자이자 유명한 리더십 코치인 팀 샌더스가 완벽한 자신감을 갖는 7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행복한 마음부자가 되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15년 동안 절망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저자가 멘토 빌리 할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유능한 컨설턴트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와 주변인들의 예화를 들려준다.

오케스트라 **'제52회 서울오라토리오 정기연주회'**

무와 유의 경계를 가르듯, 강한 오케스트라 유니슨의 울림이 천지창조의 시작을 알린다. 음표와 악기들을 사용해 우주의 혼돈(Chaos)과 무질서를 이처럼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는 작곡가가 또 있을까? 〈천지창조〉에서 세 명의 대천사 Gabriel(소프라노), Uriel(테너), Raphael(베이스)은 창조 첫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과정을 노래하고, 아담과 이브, 그리고 천사들은 창조주의 위대함과 영광을 찬미한다.

- **일정 : 3월 19일(월) 20:00**
- **장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문의 : 02-587-9277**

독주회 **'김희성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인 오르가니스트 김희성은 오르간과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무대, 오르간과 재즈의 만남 외에도 그림, 영상, 사진, 춤 등 다양한 장르와 협업을 통해 오르간의 가능성을 확장시켜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합창'을 주제로 하여, 1부에서는 '합창'과 연관이 있는 오르간 작품을 연주하며, 2부에서는 칼 오르프의 대작 '카르미나 브라나'를 무대에 올린다.

- **일정 : 3월 22일(목) 19: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
- **문의 : ㈜스테이지원 02-780-5054**

오페라 **'라 보엠'**

푸치니의 〈라 보엠〉은 앙리 뮈르제의 소설 〈보헤미안들의 인생풍경〉을 바탕으로 작곡된 전 4막의 오페라로 19세기 파리, 방황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삶을 그린 보고서이다. 푸치니 음악의 화려하고 감성적인 선율과 풍부한 시적 정서, 색채감 있는 관현악이 파리 보헤미안 예술가들의 사랑과 우정이라는 드라마적인 소재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토스카〉, 〈나비부인〉과 함께 푸치니의 3대 걸작으로 불린다.

- **일정 : 4월 3일(화) ~ 4월 6일(금)까지**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 02-587-9277**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가족, 연인을 비롯해 모든 연령층이 두루 좋아하는 월트디즈니의 원작!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Sleeping Beauty를 소재로 한 차이콥스키 3대 발레의 대표작이다. 화려하고 정교한 무대와 의상, 고난도의 기교가 돋보이며 사랑이라는 대중적 소재와 차이콥스키 음악과 클래식 발레의 환상적인 조합을 통해 발레와 클래식 애호가와 함께 일반 관객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일정 : 4월 5일(목) ~ 4월 8일(일)까지**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
- **문의 : 유니버셜문화재단 070-7124-1788**

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 로린 마젤 &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공연은 1994년 지휘자 로린 마젤과 함께였다. 그 후로 18년이 지난 2012년, 필하모니아는 다시 거장 로린 마젤과 함께 내한하여 과거의 감동을 다시 재현해 낼 것이다. 영국의 자존심으로 일컬어지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는 전 세계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며 지난 60여 년 동안, 20세기 가장 위대한 클래식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해 왔다.

- **일정 : 4월 7일(토) ~ 4월 8일(일)까지**
- **장소 :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 **문의 : 02-541-3183**

오페라 **'돈 조반니'**

하룻밤도 여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바람둥이의 전설 '돈 조반니'. 오늘도 여전히 여자를 유혹하는 그와 그를 경계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유혹의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순진한 여인들과의 좌충우돌 재미있고 섹시한 오페라 '돈 조반니'에서 바로 그가 부활한다. 희비극성의 공존을 절묘한 조화로 풀어낸 오페라 '돈 조반니'의 드라마틱한 결말은 특별하고도 묘한 여운으로 남을 것이다.

- **일정 : 4월 13일(금) ~ 4월 15일(일)까지**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
- **문의 : 서울시오페라단 02-399-1783~5**

김덕희 인간개발연구원 상임이사 / 인천대 겸임교수

최적의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적 비즈니스협상(Negotiation)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남의 것을 빼앗아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확실히 주는 상호간의 이익창출이 가장 이상적이고 서로를 만족시키는 삶이라고 했다. 하물며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지속적인 거래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성공적인 협상을 통한 고객만족의 본질인 CRM(Customer Relation Management)도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협상의 화두는 Win-Win

비즈니스 협상의 개념적 측면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협상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협상의 화두는 상호간의 Win-Win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고객과 회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자 모두의 상호이익을 추구함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협상이란 서로가 반반씩 양보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협상의 대안 중 하나일 뿐 최적의 해결방법이 아니다. 기업경영의 성공은 단 1회 거래의 신규고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하는 충성고객(Brand loyalty)의 확보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포인트, 마일리지, 캐쉬백 제도 도입의 활용도 신규고객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Relationship) 여부가 수익성 확보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며, 이럴 경우 마케팅비용은 신규고객 창출에 지출되는 평균비용의 1/6 수준이니 비용면에서나 수익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럼 협상의 시기를 언제로 잡는 것이 좋을까? 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면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다 해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익률의 저하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필자가 영업마케팅의 융합강의에서 역설하는 비즈니스 4단계 과정이 있다. 1단계에서의 신뢰구축, 2단계에서의 편익제공을 통한 설득, 그런 뒤에 3단계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협상의 3단계 없이 2단계 설득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로써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협상 자체는 좋지만 3단계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영업이 될 것이다. 일단 협상의 과정은 이견 도출에 대한 고객의 요구조건을 수용해야 하고, 수용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협상준비와 대안수립

협상의 계획수립은 고객이 요구하는 이견 도출(가격할인, 납기단축, 품질보증기한의 연장 등)과 이에 따른 자사의 영업정책에 따른 대응전략수립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협상의 5가지 대안을 개발해 준비하면 된다.

대안을 모색하는 계획수립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째, 현재의 상황인식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견 도출에 따른 고객의 요구사항을 요약해 본다. 이 과정은 이견 도출 이외의 사항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객에게 확실히 인식시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영업 입장에 대해서도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고객만 니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영업니즈도 항상 존재한다. 비즈니스의 협상목적은 Win-Win이라 정의했듯이 무리한 요구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 자사제품의 구매를 통한 고객의 가치창출에 대한 이익포기와 기회비용에 대하여 상기시킬 수 있다.

회사의 정책상 대안개발을 통한 제안을 먼저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에게 상호간의 Win-Win을 위한 제안을 서슴없이 요청할 수

도 있다. 상호간의 이익추구는 영업입장에서만 이견 해결 과정에서의 대안을 개발해야 함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안하게 될 경우에는 '가정법(if~)'을 사용하여 이견을 조율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5%의 가격할인이면 가능하시겠습니까?'라고 제시하는 것이다. 만약 이견 도출이 하나가 아니라 가격과 납기단축, 가격할인과 납기단축, 또는 품질보증기한의 연장 등 3가지라면 대안의 조합도 3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격할인은 교환의 대안으로, 납기는 강화라는 대안으로, 품질보증기한은 양보라는 각각의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후 대안의 해결안 과정을 거쳐 마련된 합의안에 고객의 입장에서 추구하게 되는 편익(benefit)을 요약하고 설명하여 협상의 결과가 고객니즈를 만족시킨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협상의 5가지 대안 - 교환, 강화, 절충, 양보, 포기

협상의 5가지 대안, 즉 최선안 'BATNA(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에 대해 알아보자.

협상의 최선 대안 첫 번째는 상호간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하는 교환(Trade-Off) 방식이다. 고객이 가격할인을 10%로 요구했을 때 교환방식을 도입하면 고객은 Win이다. 그럼 영업 입장에서도 Win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대안으로 추가구매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럼 고객은 가격할인 10%에서 Win이고, 영업 입장에서는 추가판매를 통해 Win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의 대안 중 가장 좋은 교환의 방식이다.

두 번째 대안은 강화(Reinforcement)이다. 상호간의 Win-Win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교환의 대안에서 고객이 10%의 가격할인을 요구했었다. 이 경우 고객이 추가구매가 어렵다면 영업측면에서도 가격할인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영업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객존중 차원에서도 뭔가 제품사용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플러스알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상시적인 고객철학 마인드가 필요하다. 가격할인은 수용하지 못하지만 제품사용과 관련된 부속품 또는 판촉물을 서비스로 제공해 고객과의 협상 과정에서나 향후 고객관계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충성고객 확보를 위한 고객신뢰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플러스알파를 제공해 계약을 체결하는 '강화' 대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영업 손실이 크지 않아야 한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의 확보가 영업목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경쟁사의 모방으로 보다 파격적인 플러스알파 제공이 발생하면 출혈경쟁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세 번째 대안은 절충(Split the Difference)이다. 10%의 가격할인이 요구조건인 상황에서 절충의 대안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흔히 일상 거래에서 이견이 발생했을 때 '그래, 좋아. 협상하자'라며 반반씩 양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협상 자체가 아니라 협상의 대안 중 세 번째인 절충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10% 가격할인 요구의 경우에는 5%의 가격할인을 제시하면 된다.

네 번째 대안은 양보(Concession)이다. 고객이 10% 가격할인을 요구했다면 그 제안을 수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매출은 있으나 매우 저조한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물론 시장점유율 1위이거나 자존심을 건 경쟁이라면 예외일 수 있다. 시장점유율 선두자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업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강화'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양보의 대안이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 번째 대안은 포기(Walk-Away)이다.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이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거래만 해당된다는 것이며, 향후 발생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협상의 정신으로 서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 진정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적 비즈니스 협상은 언제나 고객니즈와 영업니즈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모토(Motto)로 한다면 동반성장시대의 진정한 상생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KHDI

● **김덕희 박사**

1962년 생으로 인하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우자동차 영업팀장으로 오랜 기간 영업현장을 누볐으며, 삼성메디슨 병원전략영업부장, 현대디지텍 전략사업본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천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경영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교수의 '세일즈연구소(www.salesschool.kr)', 노동부 온라인 과정 등에 영업사원 능력개발, 영업상담기법, 전략적 영업협상기법, 고객감동 서비스 전략 등의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강재헌 서울백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장
정리 · **최용준** 주임 jun@khdi.or.kr

상주시청 제175회 '상주아카데미' 1월 19일(목)

건강수명을 늘리는 비법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 및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우리사회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청(시장 성백영)과 본원이 2006년 개설한 '상주아카데미'는 급변하는 시대에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 소양함양을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적자원 육성을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매월 진행되고 있는 '상주아카데미'는 앞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연을 통해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기혁신 및 자기개발로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1월 19일, "건강수명을 늘리는 비법"을 주제로 제175회 강연을 해주신 강재헌 박사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201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성 77세, 여성 84세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2010년도에 사망한 사람들의 통계이며, 그동안의 평균수명 추이로 미루어 볼 때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건강관리에 신경을 쓸 경우 100세를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도 미국인의 평균수명은 76세였다. 대한민국 남녀의 평균수명은 80세로 이미 미국보다 높으며, 전 세계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우리는 평균수명보다 건강수명에 주목해야 한다. 오랜 기간 병으로 고생하며 100세를 맞이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것이 더욱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100세를 가로막는 혈관병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암과 혈관병에 주의해야 한다. 혈관병이란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발생하는 질병들을 일컫는다.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중풍이 오고, 심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온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심근경색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되면 뇌경색이나 중풍일 확률이 높다.

대한민국 남성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은 사망률을 기준으로 1위 폐암, 2위 간암, 3위 위암이다. 여자의 경우는 폐암, 위암, 대장암 순이다. 현재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은 바로 폐암이다. 대부분의 암은 40대 이후에 급증하며, 그 이전에는 발병이 드물다. 암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등의 혈관병 역시 40대부터 급증한다. 결국 40대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위암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시경으로 조기검진이 가능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폐암의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완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기 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혈관병의 경우 심혈관질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혈관병 중에서도 뇌혈관질환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20여 년 전부터 혈압약 복용이 보편화되면서 뇌출혈 발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들은 대부분 체중조절을 통해 발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완치된 사례를 포함한 단순 발병율의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발병률 1위는 여전히 위암이고, 2위는 폐암이며 3위는 간암이다. 여자의 경우에도 1위는 위암이지만 2위는 유방암이다. 근래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이나 대장암은 기름진 식생활을 즐기는 사람에게서 발병확률이 높다. 이 원인은 서구화되고 있는 식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

암의 예방법

대한민국 사람은 대다수가 식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질병에 걸려 병원을 찾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기간 동안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묻곤 한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과하여 몸에 좋다는 것을 넘치게 먹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몰아먹는 습관과 편식하는 습관은 지양해야할 것이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방을 고르게 섭취해야 한다. 식단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등 총 천연색으로 상차림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채소에는 암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노화를 막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한식은 세계 어느 나라 음식보다도 건강식이지만 단백질과 칼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우유를 한두 잔 곁들이면 더욱 좋다.

짜거나 매운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위벽이 상해 위염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위벽에 염증이 생기고 아물기를 반복하여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술은 아예 마시지 않거나 석잔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다. 담배는 폐암뿐만 아니라 각종 혈관병의 원인이 되므로 끊어야 한다. 특히 비만환자의 흡연은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면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좋다. 규칙적인 운동과 긍정적인 사고도 큰 도움이 된다.

관리에 소홀함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암에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평균수명이 길어질수록 암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따라서 조기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매번 모든 검진을 할 필요는 없다. 위암의 경우 1~2기에 발견하면 95% 이상 완치가 가능하므로 2년마다 위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다. 폐암의 경우 조기에는 증상이 미미해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폐 CT촬영을 하는 것이 좋다. B형간염과 C형간염 보균자는 반드시 6개월마다 간암검사를 해야 한다. 50세에 이르게 되면 5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을 통해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이 좋으며, 여성의 경우 유방암검진과 자궁암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

체중조절을 위한 식습관

장수촌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생활습관상 공통점은 아래의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2. 과음하지 않는다. 3.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4. 적정체중을 유지한다. 5. 간식을 먹지 않는다. 6.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7. 하루에 여섯 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다. 이 일곱 가지는 현재 실천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체중조절의 필요성은 단순히 미용 측면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가장 큰 목적은 건강이다. 비만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중풍 등 주요 질환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방암과 대장암 역시 비만이 주요 원인이다.

단순히 비만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내장지방에 주목해야 한다. 내장지방은 내장 주변에 존재하는 뱃속에 쌓인 기름을 말한다. 전체적으로 살집이 있는 사람이라도 대부분의 살이 피하지방이고 내장지방이 적다면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다. 반면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은 지방간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으며, 추후 당뇨병 발병의 확률이 매우 높다.

남성과 여성의 지방 분포에는 차이가 있다. 남자의 경우 얼굴은 작아도 배가 볼록한 사람이 많고, 여자의 경우 얼굴에 살이 많더라도 의외로 날씬한 사람이 많다. 이는 호르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성호르몬은 살을 피하지방으로 보내며 남성호르몬은 뱃속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여성의 경우 50세가 넘으면 여성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에는 남성과 동일하게 내장지방이 증가하게 된다.

체중조절을 위한 식습관은 사실 간단하다. 먹는 것보다 많이 태우면 된다.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면 날씬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다. 체지방 1kg은 약 7,500kcal

정도 되는데, 이 7,500kcal를 운동으로 태우거나 먹는 것을 줄여야 1kg이 빠진다.

만약 걷는 것으로 1kg을 빼려면 30시간을 아무런 음식물 섭취와 휴식 없이 계속 걸어야한다. 운동으로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체중조절을 위해서는 운동에 식사요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1kg의 체지방이 7,500kcal에 해당되므로 하루에 500kcal를 적게 먹으면 15일에 1kg이 빠지고 한 달이면 2kg, 1년이면 24kg이 빠지게 된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 24kg이 빠지게 되면 뼈만 남을 정도의 감소량이다.

500kcal를 줄이는 방법은 식사를 거르거나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다. 군것질을 즐기는 사람은 군것질만 줄이면 된다. 예를 들어 소보로빵 2개만 덜 먹으면 된다. 라면을 즐기는 사람은 라면을 줄이면 된다. 햄버거 한 개가 약 500kcal인데 200원을 아끼고자 세트로 먹으면 바로 1,000kcal가 넘어가고, 맥주 1,000cc가 500kcal인데 닭튀김 두 조각을 함께 먹으면 바로 1,000kcal가 넘어간다. 500kcal를 밥으로 줄이려면 한 끼를 걸러야 하지만 야식이나 간식을 줄이면 보다 간단할 수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의 상당 부분은 주식이 아닌 간식으로부터 나온다.

탄수화물 간식을 줄여라

요즘 사용하는 밥공기는 매우 작고 그마저도 줄여 먹는다. 예전 어른들은 밥을 수북하게 쌓아 먹었으나 당시에는 비만이 없었다. 그 이유는 군것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이 많이 먹지 않음에도 살이 찐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환자들에게 일주일 간 음식물을 섭취할 때마다 식사일기를 기록하도록 처방하는데, 일주일 뒤 환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개 사람들은 간식으로 섭취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체중조절의 가장 큰 적은 수저 없이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음식, 즉 핑거푸드이다.

식단은 곡류와 어육류, 우유 등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구성하여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쌀과 보리 등 곡류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밥 대용으로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을 먹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감자와 고구마, 옥수수를 간식으로 섭취하고 주식인 밥은 밥대로 따로 섭취한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피해야할 음식 1순위가 바로 주식인 밥을 제외한 감자, 고구마와 같은 탄수화물 음식이다. 감자나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작은 감자 한 개가 100kcal이고, 밥 반공기가 150kcal이다. 감자 한 개를 먹는 것과 밥 반 공기를 먹는 것을 비교하면 포만감에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열량 대비 포만감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탄수화물 간식은 피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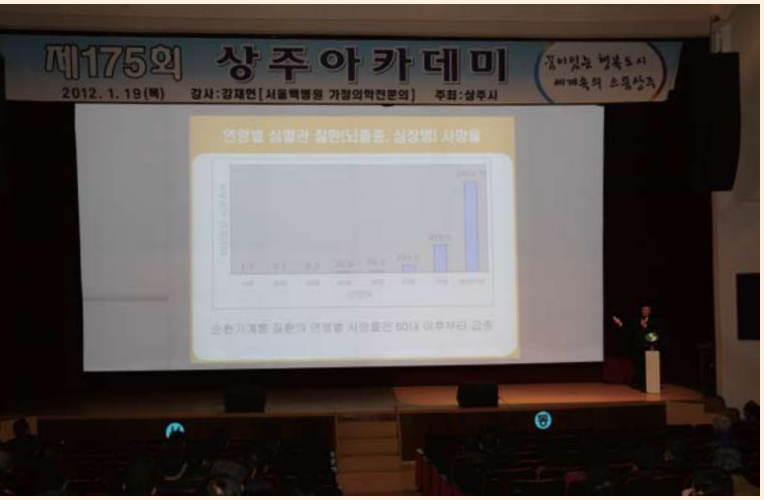
기름기 없는 단백질과 채소의 섭취를 늘려라

다이어트에 있어 가장 잘못된 편견 중 하나는 바로 고기에 관한 부분이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결심하는 것은 고기섭취를 끊는 것이다. 고기에게는 죄가 없다. 고기가 살을 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기가 살을 찌게 하는 것이다. 특히 기름진 양념이 살을 찌게 한다. 기름이 없고 양념을 하지 않은 고기는 도리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특히 해산물이 좋다. 생선의 경우 등 푸른 생선보다 흰살 생선이 체중 조절 측면에서 더 좋다. 이런 단백질의 경우 포만감이 느껴질 정도로 많이 섭취해도 좋다. 다만 중요한 점은 기름이 적은 상태로 먹어야한다는 점이다. 사실 양념과 기름이 없는 단백질은 많이 먹기도 힘들고 포만감도 매우 크다.

두부는 다이어트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건강식품이다. 두부 한 모를 먹으면 밥 두 공기를 먹은 것과 같을 정도로 열량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은 살이 찌지 않는다는 착각을 한다. 건강과 살은 별개다. 고등어를 비롯한 등 푸른 생선은 몸에는 좋으나 기름기 때문에 살이 찐다. 계란의 경우 흰자만 먹으면 다이어트 식품이지만 노른자를 함께 먹으면 살이 찐다.

채소의 경우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당근이 달콤한 맛을 내는데 당근에도 열량이 있으니 많이 먹으면 살이 찌지 않느냐는 질문을 환자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당근의 경우 매 끼 한 포대씩 먹는다면 살이 찔 수도 있다. 즉, 아무리 먹어도 체중에는 별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과일은 주의해야 한다. 과일의 당도가 높을수록 살도 많이 찐다.



특히 조심해야할 과일은 반건시, 곶감 등 말린 과일이다. 말린 과일은 열량이 매우 높다. 큰 홍시를 3개 먹으면 배가 불러 밥을 먹지 못할 정도이지만 곶감 3개는 디저트로도 먹는다.

여성들 중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우유를 많이 섭취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유에는 유지방과 유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다가 살을 감당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유는 꼭 저지방우유나 무지방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

웰빙기름을 줄이고 섭취열량을 낮춰라

환자 중 한 분이 다이어트를 위해 산채나물을 먹기로 결정하고 매 끼니마다 들기름에 비벼서 먹었다. 두 달 후 그분은 10kg가 더 늘어서 나를 찾아왔다. 몸에 좋은 기름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올리브유, 들기름, 포도씨유, 참기름 모두 열량 면에서는 돼지비계와 다를 바가 없다. 웰빙기름이라 할지라도 요리할 때 과감히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밥을 볶아 먹는 것도 치명적이다. 한 공기에 300kcal인 밥이 볶음밥이 되면 600kcal가 넘어가게 된다.

외출해서 식사를 할 때에는 비빔밥이 다이어트에 좋다. 비빔밥은 600kcal가 넘지 않으나 영양소의 비율이 매우 훌륭한 식사이다. 단, 참기름을 추가로 더 넣지는 말아야 한다. 핑거푸드는 매우 위험하다. 호떡 한 장이 밥 한공기와 같다. 호빵이나 붕어빵도 마찬가지이다. 떡볶이와 순대 모두 한 끼 식사의 열량이다. 살을 빼려면 하루 1,200kcal에서 1,300kcal 정도를 섭취해야하는데, 이렇게 먹을 경우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간식은 저지방 우유 한 잔, 귤 한 개, 딸기 몇 알 정도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술을 마셔서 살이 찌는 건 우리나라 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 술을 많이 마시면 뼈만 남아 사망하지만 우리는 배가 나와 사망한다. 우리는 술을 마실 때 밥을 꼭 챙겨먹고 안주를 잘 챙겨먹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못 먹던 시절엔 맞는 이야기이지만 현대에는 그렇지 않다. 만일 술을 마실 때 안주를 샐러드 하나 정도로 끝내면 음주로 인해 살이 찌지는 않는다. 우리는 안주로 볶고 튀긴 기름진 것을 먹어야 한다고 믿는데 이를 피하면 직업적인 이유로 술자리가 자주 있는 사람도 살이 찌지 않을 수 있다.

다이어트의 성공, 건강은 덤이다

환자 중에 한 분은 기름진 고기를 좋아했다. 특히 삼겹살을 좋아했고, 달콤한 음료를 좋아했는데, 이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이 넘었고 지방간이 심했다. 처음 이 분이 날 찾아왔을 때 비만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3개월 후에는 매우 많은 내장지방이 사라졌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과 지방간 등이 약 한 알 먹지 않고 완치되었다.

배가 나오면서 없던 지방간이 생기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문제가 생겼거나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가 생긴 사람이 있다면 내장지방을 빼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약 없이 완치될 수 있다. 당뇨병이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약을 써서 치료한다고 해서 합병증을 100% 막을 수는 없다. 약물치료로 혈당조절이 잘 돼도 20년 후 합병증이 오는 경우가 많다. 고지혈증을 약으로 조절해도 심장병 발생을 100% 예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식사조절과 운동으로 내장지방을 빼서 당뇨와 고지혈증을 완치하면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식사조절과 운동으로 체중조절에 성공하면 건강은 덤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 강재헌 소장

1965년 생으로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호주 시드니대학 비만센터 교환교수를 지낸 뒤 현재 인제대 의과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건강증진센터와 비만센터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검증된 임상 데이터와 치료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만환자 치료에 몰두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비만 분야 '한국 최고의 명의' , EBS 메디컬 다큐 '명의'의 '비만 분야 명의' 등에 선정된 바 있다.

융합이 세상을 바꾼다

바야흐로 융합(convergence)의 물결이 경제 분야에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유수의 경제 잡지에서 융합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이코노미 플러스〉는 신년호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나라경제〉는 2월호에서 융합을 커버스토리로 꾸몄다.

21세기 들어 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서로 다른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은 상상력과 창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로 여겨지고 있다. 융합은 여러 갈래가 있다. 융합 주체에 따라 지식융합(학계), 기술융합(연구소), 산업융합(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융합 범주에 따라서는 '인문학+과학기술', '과학기술+과학기술', '문화예술+과학기술'로 나눌 수도 있다.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orld Class University)' 육성 프로젝트는 해외 저명 학자들을 초빙하여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융합학문과 융합기술의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09년 3월에는 서울대에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이 문을 열고, 융합기술 중심 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가 설립되었다. 2010년 11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세계중심 국가를 향한 인재 육성방안'을 보고하면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의 장벽을 제거하는 '융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08년 11월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하고 이 5개년 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융합기술 지도를 완성하였다. 지식경제부는 2011년 4월 '산업융합 촉진법'을 제정하고 2012년 3월에 '인문기술융합연구소'를 발족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코노미 플러스〉가 신년호에서 융합을 커버스토리로 다룬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나는 2008년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 흐름을 개괄한 〈지식의 대융합〉을 펴내고, 2010년 국내 최고의 전문가 39명의 글을 엮은 〈기술의 대융합〉을 기획한 까닭에 '전문가 인터뷰' 꼭지로 소개되었다. 기사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그는 한 가지 뜻밖의 에피소드를 꺼냈다. 지난 3년간 120회에 달하는 융합 강연을 다녔지만 기업체에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강연이 대학이나 정부 출연연구소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벌써 수년 전부터 융합이니 컨버전스니 하는 말이 산업계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음에 비춰보면 참으로 의외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 국내 기업은 융합의 큰 그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술과 기술의 융합에만 치중하다보니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 같다. 기술융합은 기존의 것들을 잘만 섞으면 되니까 그럭저럭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인문학과 기술을 융합해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를테면 세상을 바꾸는 신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인문학과 기술의 융합을 강조한 스티브 잡스 같은 기업가는 한국에서 쉽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KDI의 〈나라경제〉가 '기술과 인문학의 만남'을 쟁점으로 다룬 이유도 짐작이 간다. 나는 이 특집의 총론에 다음과 같이 썼다.

"스티브 잡스처럼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인문주의자가 벼락처럼 나타나서 한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면 좋으련만."

***참고자료**

〈지식의 대융합〉 이인식, 고즈윈
〈한국교육 미래비전〉 한국교육개발원, 학지사

● **이인식 소장**

1945년 생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지식융합연구소 소장, KAIST 겸직교수로 활동 중이며,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과학 칼럼니스트 1호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에 450편 이상의 고정칼럼을 썼고, 월간조선, 과학동아, 주간동아 등에 150편 이상의 기명칼럼을 연재해왔다. 제1회 한국공학한림원 해동상, 제47회 한국출판문화상 등을 수상했으며, 〈이인식의 과학나라〉, 〈지식의 대융합〉, 〈이인식의 멋진과학〉 등의 저서가 있다.

2011년 3월부터 집필해주셨던 홍원탁 서울대 명예교수의 칼럼에 이어 이번호부터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장의 칼럼이 시작됩니다. 좋은 글로 지면을 빛내주신 홍원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새로운 소재 없을까?

소재의 차이가 미래의 차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믿습니다. 소재, 그 무한한 가능성이 활짝 피어난다면,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즐겁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소재, 그 무한한 가능성

'TORAY' 도레이첨단소재

필름 광학용 필름 및 차세대 고기능 필름
섬유 위생용 및 산업용 부직포, 고기능 원사
IT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및 전자정보재료 등
친환경 수처리 사업 및 분리막, 생분해성 수지 제품
탄소섬유 산업용 탄소섬유, 탄소섬유 복합재료(CFRP) 등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용 소재 및 태양광 관련소재

농협의 새로운 출발,
대한민국의 미래와 [같이]합니다

대한민국 농업을 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모두가 꿈꿔왔던 농협의 변화, 전문화된 사업구조개편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두 글자
[같이]의 힘을 믿습니다

같이의가치 NH 농협